



2003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 Homeless Memorial Day

〈2003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Homeless Memorial Day)〉는 매년 평균 3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행려자로 처리되어 한 생을 마감하는 현실을 알리고, 추모하고자 2001년부터 일년 중 밤이 제일 긴 동짓날을 기해서 매년 한차례 개최해오고 있으며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추모제는, 사회구조적 모순에 의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무의탁 빈민'인 노숙인 문제를 바라보고, 사회적 차별에 맞서 노숙인을 비롯한 무의탁 빈곤계층의 삶을 이해하는 장입니다.

추모기금 모금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 름 :
소 속 :
주 소 :
연락처 :
이메일 :
약정액 :

계좌번호 : 하나은행 389-910001-18304

예금주 : 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http://www.homelessaction.or.kr>

떨꺼등의이

무료진료소, 드림인센터와 같은 거리노숙인 지원사업들이 생겨나고 노숙인 사업이 제도화되면서 올 한해는 정말 뿌듯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면 비인권적인 노숙인정보종합관리시스템(인트라넷)과 늘어나는 거리노숙인에 대해 개인의 의사의 반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현실과 서울시가 철거용역으로 거리노숙인 대거 참여시키는 물상식한 행태에 대해 분함을 식힐 수가 없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하는 지금! 노숙인의 인권은 누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하고 지켜야하는지...

[떨꺼등이]란? '외지하고 지내던 곳에서 맨손으로 쫓겨난 사람'을 뜻하는 말로 'homeless'와 비슷한 뜻을 가진 순수한 우리말이다.

2003년 12월 제 5호



노이보지와이권을이척하는사람들
국 립 인 권 실 천 의 사 협 회

빈곤! 가진 자와 가난한 자들의 틈새가 점점 더 벌어지는 우리시대의 빈곤은 '풍요 속의 빈곤으로' 표현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물질이 휩쓰는 국제사회에서 빈곤은 지난 세기의 빈곤문제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이전 세기의 빈곤문제는 빈곤선 이하의 절대 빈곤층이 다수였다는 점, 나눌 수 있는 사회적 부(富) 자체가 적었다는 점에서 운명으로 다가오는 빈곤이었다. 하지만 고도성장 속에서 일정 정도 소득생활을 맞본 뒤 찾아온 빈곤확대의 문제는 소득분배의 불균형이라는 구조문제를 최우선으로 제기한다.

현재 국제사회는 빈곤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빈부의 격차가 전지구 차원으로 심화됨에 따라 빈곤이 개인의 가난으로 치부되던 논의를 넘어서 인류 보편의 문제가 됨을 뜻한다. 더구나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의 결과로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 현상이 심화되고, 빈곤의 세습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기에 국제사회는 빈곤문제를 인권문제로 다루게 되었다.

인권의 눈으로 빈곤을 바라본다면 '빈곤은 인권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사회악(社會惡)'이라 할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다는 사실만으로 사회로부터 배제된다. 또한 가난은 사회적 배제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빼앗는' 영성의 가난을 동반한다. 노숙인들을 보라. 그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할 뿐만 아니라, 항상 마음의 평화를 빼앗긴 채 고통과 괴로운 소외의 불길 속에서 고통받고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차별과 멸시는 물론 내면세계에서 스스로를 비난하고 멸시하며 차별하고 있다.

이렇듯 빈곤은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하며 생명의 존엄을 앗아가는 폭력이자 사회악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다수의 노숙인들은 몸과 마음이 모두 가난한 소수자로서 '빈곤'과 '다름'이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사회에서 배제, 무관심, 증오, 구별 등 다양한 형태로 관리되며 통제하고 있다.

더 이상 빈곤과 인권문제에 등을 돌린 채 무관심하게 살아갈 수 없다. 한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전체 공동체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에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물질 속에 파묻혀 버린 잊혀져 가는 노숙인들의 복지와 인권을 '나' 혹은 '우리'의 복지와 인권문제로 받아안아서 실천할 것이다.

따라서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차별과 무관심, 증오, 구별 등 한국사회에서 배제하고 통제하려는 노숙인들의 복지와 인권,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로서 소수자들의 권익을 개선하고 향상하려는 목적으로 모인 시민사회단체임을 천명한다.

또한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의 가슴마다 평화의 씨를 피우는 '평화의 씨앗'으로 전 지구 공동체의 평화를 일구는 초석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2001년 12월 12일

노숙인복지와인권실천하는사람들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의 부당성과 재검토에 관한 서울시 입장을 묻는 질의서

1. 서울 시민의 복지 증진과 노숙인을 비롯한 빈곤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나은 시장을 펼쳐주시길 기대하며, 본 질의서와 첨부한 성명서를 참조하시어 서울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지난 10월 13일부터 1주일간 영등포역 광장에서 서울시가 노숙인 지원업무를 민간 위탁한 노숙인다시서지지원센터를 통해 구축운영 중인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의 완전 폐기를 주장하는 노숙 당사자 두 분의 시위가 있었으며, 이후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시하시다시피 서울시는 지난 1998년 IMF 국가 위기상황을 거치면서 사회문제화 되기 시작한 실직 노숙인들의 응급구조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희망의 집을 개소하고, 노숙인다시서지지원센터를 설치해 희망의집 지원업무를 포함한 서울시 노숙인 지원업무 전반을 민간 위탁해 왔으며, 지난 99년부터는 두 분 당사자분들의 주장대로, 각 희망의집 상담 실무자가 상담을 통해 종이문서로 된 상담기록지 형태로 수감관리하던 개인신상정보와 상담기록을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노숙인다시서지지원센터에 설치된 서버에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정보를 입력하고 집적시키도록 운영해 왔었습니다.

3. 현재 총 9개의 영역(개인신상 / 압퇴소 / 의료 / 다시서기수첩 / 프로그램 / 연장사 / 보고통계 / 관리 / 계산판)으로 구성되어 있는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은 그동안 몇 차례 보완 과정을 거쳐 때마다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단 한차례도 공청회와 같은 민주적 의견수렴과정이 없었으며, 인터넷을 통해 9개의 영역에 걸쳐 통합적으로 집적되고 있는 개인신상정보와 상담기록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노숙 당사자의 동의를 묻지 않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은 실직, 가족해체, 복지의 사건 발생, 사업의 실패, 질환 등 여러 가지 중립된 이유로 인한 한계적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노숙인 쉼터인 희망의집을 이용하게 되는 분들에 대해, 수검된 정보의 보존 기간이 나 파기 등의 명시도 전혀 없이 한번 노숙인은 영원한 노숙인으로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에 DB화되어 남아 있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전과기록처럼 남게 되는 매우 불합리한 모순을 안고 있으며, 또한 인터넷을 통해 연동시켜 집적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확실해 위법의 소지가 매우 큰 시스템입니다.

4. 따라서 노숙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일생의 어느 한 순간 자신의 처지가 사회복귀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로 인해 의료기록에 준하는 비밀이 지켜져야 할 자신의 상담기록과 개인신상정보가 자신의 동의나 법적 근거도 없고, 보존 기간이나 파기에 대한 명시도 없이 수집되고, 더구나 수집된 정보의 규모에 비례해 커지는 유출의 위험성에 대해 책임과 보호조치를 전혀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개인신상정보와 상담기록이 직접 입력되고 보관관리되어야 한다면, 당연히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차별이자 통제라고 부어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서울시와 같은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노숙인에 대한 취업알선이나 사회복귀 등의 서비스 제공과 나아가 행정적 통계와 학술적정책적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Data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개인신상정보와 상담기록의 경우는 그 목적에 따라 수집과 이용 및 보관관리의 형태가 구분되어 지고 달라야 할 것이며, 과연 어디까지가 비밀의 보호가 이루어져야 할 정보인지에 대해, 특히 인터넷을 통해 집적되는 Data의 경우 법적 근거에 대한 검토와 정보제공 당사자의 권리 등을 민주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충분히 수렴한 후 수집·이용·보관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이상 지적한 내용에 따라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현재 구축운영중인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이 매우 위법적이고 부당한 시스템이며, 이제라도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노숙인 복지 관련 당사자들 간의 협의기구를 구성(외부 법률전문가와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하고, 공청회를 비롯한 민주적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노숙인 정보 수집과 이용 및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

2003. 10. 27

노숙인복지와인권실천하는사람들

기획글 · 두가지

서울시는 노숙인 DB, 인터넷 폐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 4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정책 세미나 '사회복지 서비스 기록과 정보인권 보호' 발제문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대표 문현준

청계천 철거현장의 노숙인 | 11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편집부

삶터이야기 · 네가지

이 기쁨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답글.. | 16
서종익(관악노인복지관 희망의집/생활지도원)

양평쉼터에서 한 시인(?)이 전하는 편지.... | 19
서병철(양평쉼터/생활지도원)

한울타리사람들 이야기 | 24
박정수(한울타리사람들/대표)

2003영등포거리영화제 마지막날 거리한마당 풍경 | 31
이윤나(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특집글 · 두가지

한일교류회 리포트(7월 10일 ~ 15일) | 34
문현준(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대표)

한달 넘긴 서울역 시국농성장 풍경 | 48

"좀 쓸쓸해졌지만 계속해야 할 이유 있습니다."

고동우(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그밖에 글들

빈곤문제 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투쟁 기자회견문 | 51

빈곤문제 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단

노실사 활동 일지 | 54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편집부

'2003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

Homeless Memorial Day | 60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편집부

서울시는 노숙인 DB, 인트라넷 폐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정책 세미나 '사회복지 서비스 기록과 정보인권 보호' 발제문
노숙인복지와인권실천하는사람들 대표 문현준

1. 서울시로부터 노숙인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노숙인 DB-인트라넷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온 지원센터의 경우 지금과 같이 인트라넷 문제가 불거지게 되어 반인권 단체로 오해받는 것 같아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노실사 활동에 주요하게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대부분이 노숙인 지원 시스템 안에서 실무자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왜 지금에 와서 인트라넷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갈등하고, 다른 실무자와 심지어 당사자들로부터도 불평의 소리를 듣고 있어, 인트라넷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였음을 밝힙니다.

그럼에도 노실사의 이름으로 현행 인트라넷 시스템의 완전 폐기를 주장하는 이유는, 그동안 노숙인 지원 시스템이 서비스 제공자, 관리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 왔던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노숙 당사자의 입장에서 서서 문제를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야겠다는 것과, 또 하나 밖을 향해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이야기 하는 것과 똑 같은 무게로 당사자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도 고쳐 생각해야겠다는 나름의 고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 지금부터 평소 인트라넷 시스템에 대해 저희단체가 주장하고 생각하고 있던 입장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행 인트라넷 시스템은 서울시 예산으로 구축되었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당연히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인트라

넷 구축의 목적과 그 목적에 맞게 정보가 수집되고 활용·보관·관리되고 있는지 밝히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현행 인트라넷 시스템의 정보인권 침해여부와 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서울시 입장을 방어함과 동시에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에 서울시 담당자가 토론자로 함께 자리하지 않았고 또한, 오늘의 토론을 통해 결과물이 나오더라도 과연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 반응이 될지에 대해서도 전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서울시 공무원이 참석을 했다면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 길거리에 나선 노숙인들. 그렇다고 이들의 정보인권까지 내팽개친 것은 아니다. 이들에 대한 자의적인 정보 수집은 없어야 할 것이다. 9/25 인터넷신문 대자보

3. 또 하나 짚고 싶은 점은, 현행 인트라넷 시스템의 완전 폐기와 부당성에 대해 묻는 1차 질의서를 보낸 후 서울시가 보내 온 답변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문제는 위탁업무를 추진해 온 지원센터에 확인한 결과 지난 8월부터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정기적인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 내용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스스로도 그동안 현행 인트라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숙인 정보를 DB화 시키면서 당사자에 대한 사전 고지와 동의 하에 개인 신상정보를 비롯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관리기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8월 이전에 사전 고지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되어 DB화된 정보와 이 문제가 불거진 8월 이후 약식으로라도 동의를 받고 수집해 DB화한 정보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서울시는 아직도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에 대한 사전 고지와 동의를 받지 않고 DB화한 Data에 대해 그냥 이대로 묻혀두고, 현행 인트라넷 시스템에 대해 논의를 한다는 것은 분명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사자가 자기 의사결정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한 아무리 국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아야 될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 고지와 동의는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것이며, 그런 절차가 없이 수집된 정보였다면 이제라도 그에 합당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다음은 현행 인트라넷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목적에 대한 부분인데, 이는 서울시가 보낸 1차 답변서를 통해서 밝힌 목적에도 아주 잘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서울시가 1차 답변서를 통해 밝힌 그 정도의 목적에 준해서 일종의 서비스 이용기록을 전산화 했었다면 현재와 같은 갈등이나 오해는 불필요 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현행 인트라넷 시스템은 서울시가 밝힌 목적과는 크게 어긋난 필요 이상의 정보가 어떠한 보호 장치도 없고 제한도 없이 수집·축적되어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가 밝힌 목적을 보면, "서울시에서는 노숙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이들 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숙자 보호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은 급식비, 관리운영비, 의료구호비 및 프로그램운영비 등이 있으며, 이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되는 것은 시설에 입소한 노숙자의 이용 인원입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대상과는 달리 노숙자는 쉼터의 입·퇴소

가 자유롭고, 수시로 입·퇴소와 재입고가 추진되기 때문에 각 쉼터들이 실시간으로 집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서울지역의 쉼터간 함께 공유하는 인트라넷 구축이 필요한 것입니다."라고 인트라넷 구축의 목적을 밝혔는데, 이러한 목적이라면 이미 노숙인 지원사업이 시작되던 초창기부터 각 희망의집 단위에서 매일매일 파악해 각 구청 FAX를 통해 전송되었고, 현행 인트라넷 시스템을 통해서도 입력되고 있는 (일일보고)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일일보고)를 통해 파악·보고 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전일 입소자 수, 입·퇴소자 수, 금일 재소자 수도 파악이 되고, 공공근로,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등 취업 현황도 파악이 됩니다. 또한 시설 입소자 수, 병원 이송자 수, 타 희망의집 전원자 수 등 퇴소 사유별로 구분을 해 집계가 되고 있고, 병원 이송환자현황(보라매 병원-내·외과, 서대문병원-결핵, 은평시립병원-정신·알코올 등)도 병원별로 구분을 하여 집계가 되기 때문에 병원별 특성에 따라 이송된 환자의 특성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입소 현황(청소년, 노인, 부랑인, 여성 등), 그날그날의 특이사항, 입·퇴소자 명단까지도 파악·보고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항목별로 구분되어 집계되고 있는 (일일보고) 형태라면 서울시가 밝히고 있는 목적에 충분히 준하기 때문에, 굳이 현재와 같이 일종의 방대한 개인 정보종합데이터베이스 시스템화 되어버린 현행 인트라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을 계속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일일보고)의 항목을 좀 더 구분하고, 명확하게 입·퇴소와 재입소, 병원이용, 취업상황, 현재 진행중인 프로그램 참여 현황 등, 희망의집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세밀화 시키면, 앞서 서울시가 밝힌 "입·퇴소가 자유롭고 재입소가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노숙인의 특성으로 인한 실시간 집계"를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5.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현행 인터넷 시스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개인 신상정보)와 (개인 상담기록)에 대한 문제가 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수집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사회복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록과 정보 수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집을 하되,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집적하는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좀 번거롭더라도 노숙인 지원 사업이 시작되던 초창기로 돌아가 개별 희망의집 상담원 단위에서 상담과 생활과정을 통해 종이 문서로 된 수기 형태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 보관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인터넷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 8월부터는 약식으로 동의 절차를 밟고, (개인 상담기록)의 입력을 막아 놓고, (개인 신상정보)에 입력하던 항목의 수도 조금씩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의 지침이라면, 이렇게 (개인 상담기록)의 입력을 막고, (개인 신상정보)에 입력하던 항목 수를 조금씩 조정한 것의 배경에는 이것이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이 미쳤다면 아예 원칙적으로 (개인 신상정보)와 (개인 상담기록)을 개별 희망의집 단위에서 평소 해오던 대로 수집·관리하도록 하면 될 것인데, 과연 어떤 기준으로 (개인 신상정보) 항목을 빼고 조정을 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느 혹자의 말처럼 (결혼 여부)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없는 정보이니 수집해도 되고, (이혼 사유)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할 수 있으니 항목에서 제외하고... 도대체 여기에 어떤 기준이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노실사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 느낄 수 있는 (개인 신상정보)와 (개인 상담기록)의 인터넷을 통한 집적과 보관, 그것도 '노숙자라는 용어

로 DB화되는 것은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 사생활의 노출이자 또 다른 낙인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만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 하나의 예를 들자면, 모 컴퓨터에서 함께 야유회를 간 사진이 "희망의집 가족 일동"이라고 책자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걸 뒤늦게 본 당사자 한 분이 희망의집이라고 하면 '노숙자'라고 다들 인식하게 되는데 사진을 왜 책자에 실어 놓았느냐며 불쾌함을 감추지 못하고 항의하던 모습을 보면서, 참 무심코 지나쳐 오던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당사자의 (개인 신상정보)라 할 수 있는 정보의 수집과 수집된 정보의 보관 형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집된 정보의 인터넷을 통한 연동·집적·보관과 종이 문서로 된 수기 형태로 수집·기록·보관·활용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밝혔듯이 관리 감독을 잘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아예 원칙적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 생각합니다.

6. 상당수 실무자 분들이 의료기록은 어떻게 하느냐, 이전 희망의집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파악 하느냐 등의 문제제기를 하시는데, 굳이 애써서 이미 한번 상담기록지에 기록한 내용을 다시 재입력하는 수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런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장치들은 우리 안에 다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Data의 경우 서울역 진료소와 서울 자유의 집이 있고, 역 상담소를 통해 각 희망의집에 입소할 때 해당 보건소를 통해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하게 되어 있으며, 서울 자유의 집을 통해 입소하시는 분들의 경우도 자유의 집 내에서 파악된 기초적인 건강 기록들이 담긴 상담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와 과정이면 입소하시는 분들의 의료적 Data와 기초적인 정보들은 충분히 파악이


되며, 최소한 언제 입소했고 언제 퇴소했는지에 대한 기록만 앞서 서울시가 밝힌 목적에 따라 일종의 서비스 이용기록을 전산화 한다면, 현행 인터넷 시스템의 효율성과 편리함을 따지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사람을 중심에 두어야 할 사회복지에서, '노숙자'에게 쏟아지는 사회적 차별에 맞서야 할 노숙인 복지에서 편리함과 효율성 이전에 생각해야 될 가치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7. 끝으로 개인 식별에 관한 문제인데, 만약 현행 인터넷 시스템을 폐기하고 별도의 서비스 이용기록을 위한 전산 시스템을 갖춘다면 현재와 같이 세트화된 이름과 주민번호 대신, 이름과 생년월일 또는 이름과 다시서기수첩번호로 개인 식별 방식을 변경해야 하며,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의 신상을 보호한다는 각별한 의미를 담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형태의 개인 식별 방식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해 노숙인 지원 체계 안에서의 이러한 노력이 있음을 알리고 신뢰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8. 그동안 우리는 '노숙자'라는 이름으로 무수한 정보를 수집해 왔습니다. 이미 충분히 노숙인에 대한 대략의 실체를 규명해 내었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취약한 노숙인 지원 시스템으로 다 껴안을 수 없는 사람들을 '노숙자'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깨내고, 서비스 제공자, 관리자라는 이름으로 사생활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선을 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반문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분명 노숙인 지원 체계를 이용하고 거쳐 가는 것은 인생의 어느 한 시점이며, 우리가 노숙인 지원 시스템에서 중요한 과정으로 생각하는 사회복지라는 측면을 생각 하더라도 '노숙자'로 DB화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보호라는 측면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청계천 철거현장의 노숙인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편집부



△ 노점상 시위대가 오전 11시경 용역업체직원들에 의해 강제해산되자 포크레인, 지게차로 중무장한 철거반원들이 곧바로 노상 적치를 철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새벽 1시경 전화가 왔었습니다. 최00씨였습니다.

하루 전날 자신이 직접 쓴 철자가 도무지 맞지 않은 무슨(?) 계약서를 들고 와 한글문서로 작성해 프린트 해줄 것을 부탁하던 최00씨였습니다. 이는 여자 분을 소개시켜주던 평소 알고 지내던 김00 삼촌이 적절한 사례를 하겠다고 말한 약속을 문서로 확인해 두겠다는...아뭏든 참 때 묻지 않은 분들의 계약서를 받아두고 이런 저런 농담을 하면서 최00씨의 의도가 계약서에 반영되도록 몇 번을 묻고 물어 고쳐 써서 소원 성취한 최00씨가 뽑아주는 커피를 마시고 12시쯤 헤어 졌는데 자신이 부탁한 문서를 1장 더 프린트해달라며 부탁해 왔습니다. 왜 아직도 안자고 있냐며 내일 꼭 뽑아서 줄테니 주무시라고 얘길 했더니 새벽 3시경에 철거하러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면서 내일 고기나 구워 먹자고 그러더군요.



△ 30일 오전 8시경 한차례 무력 시위가 끝난 뒤 용역 직원들과 노점상들이 바리케이트를 사이에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작년부터 알고 지내게 된 최00씨는 올 1월까지만해도 약 10년간 노숙과 쪽방 생활을 반복하다가 올 2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가 되어 지금은 서울역 벽산빌딩 뒷편에서 0.7평 정도 되는 쪽방을 얻어 생활하고 있는 분입니다. 최00씨의 수급권 신청을 위해 한동안 동행을 하며 주민등록증도 다시 복원하고, 진단서 발부를 위해 여러차례 병원도 다니고 하면서 지금은 종종 제가 최00씨로부터 짜장면을 얻어먹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간질이 심해 지속적인 노동이 힘든 최00씨는 서울역에서 남들이 공중전화기에 꽂아 놓고 깜빡 잊고 가는 전화카드를 다시 되팔거나, 가끔 있는 철거일로 버는 수입으로 노숙과 쪽방생활을 반복해오다 그나마 수급권자로 선정되어 월 15만원하는 쪽방을 얻어 노숙생활을 벗어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최00씨를 보면서 그동안 지나 온 제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 볼 때도 있고,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활동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 오전 7시 10분, 용역직원들이 다가오자 창계 7가에서 농성 중이던 노점상들이 페타이어 등에 불을 붙여 위력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 노점상은 이 불이 꺼지자 창계 8가 방향으로 물러났다.

잠들면 일어나지 못한다고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새벽 3시 30분경, 서울역으로 나간 최00씨는 용역업체가 대절한 버스를 타고 내린 곳이 청계천 철거현장이랍니다. 인천간다고 일찍 나오라고 한게 아니라, 새벽부터 시작할 청계천 노점철거에 투입하려고 그렇게 서둘렀답니다.

최00씨의 말로는 노숙인들이 약 600명 정도가 동원되었다는데 철거가 끝나고도 일당도 주지 않고, 자신의 치료비조차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매달 20일이 수급권자에게 생계급여가 통장으로 지급되는 날인데, 다리를 다쳐 잘 걷지도 못하고, 월말에 내는 방값 15만원을 제하고 나면 땀 한푼없이 한달을 어떻게 보내느냐며 억울해 죽겠다고 그러합니다.

그런 최00씨 앞에 왜 그런대를 가서 그 지경이 되었냐고 제가 짜증을 막 부렸 습니다. 제 입에서 쌍욕이 막 나왔습니다. 최00씨가 한사코 말리는 저를 뿌리치

며 가끔씩 사주는 서울역 인근의 짜장면집 밥배기 값이 2000원입니다. 그 돈을 주머니에서 꺼낼때보면 얼마나 소중한 꺼내는지 모릅니다. 남들의 단 돈 2000원을 꺼내면서 다시 피고···또 다시 피고 하는 그런 최00씨가 일당 5만원, 목돈을 벌려고 잠 한숨 자지 않고 밤을 지새우고 영문도 모르고 나간 청계천 철거현장에서 조직 폭력배와 공무원들의 방패막이로 앞으로 나가라며 재촉하는 그들의 앞에서 날아오르고 치솟는 불길에 겁먹고 떨어졌을 생각을 하니 그 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다리를 심하게 절며 서울역 광장의 농성장에 나타난 최00씨는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하고 몸을 심하게 떨었습니다.

무릎을 다쳐 몇바늘 꿰매었는데 치료비도 못받고, 일당도 못받았다며 치료비로 126,000원이 찍힌 영수증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 노점상 시위 진압에 투입된 용역업체 직원들. 이들중 서울역 등에서 등원된 노숙자도 끼여있다.

최00씨를 보면서 마음 같아선 서울시와 LG건설, 포스코 등 뻥히 용역업체들이 아무런 보상도 걱정할 필요없고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저렴한 노숙인들

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저들의 추악한 두얼굴에 무슨 짓이라도 저지르고 싶은 심정입니다.

노숙인 보호사업을 한답시고 매년 노숙인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행정당국의 노숙인 보호사업이 제자리를 잡고 안정화되었기 때문이라며 떠들던 서울시가, 2001년까지 줄어든 약 1500~2000여명의 노숙인의 수는 평균 사망연령이 48.3세로 매년 250~400여명이 행려자로 처리되어 사망한 '사망노숙자'에 의한 자연 감소분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숙인 보호사업이 안정화되었다고 생색은 다 내는 서울시는 또 한편으로 노숙인을 철거에 동원하는 용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없는 사람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추악한 짓거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아마도 담당업무를 맡은 부서가 달라 모른다고 하겠지요?

작년 철거때 머리를 심하게 다쳐 붕대를 칭칭 둘러매고 지하도 한 귀퉁이에서 머리를 감싸 쥐고 두통이 심하다며 힘없이 있던 그 아저씨 한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세번째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를 준비하면서 행려자로 처리되어 사망하는 노숙인들이, 우리시대 마지막 무의탁 빈민인 노숙인들이, 이 추악한 자본주의의 폐해를 온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노숙인'이라는 말을 듣지 않았으면 하는데 오늘도 철거로 짓밟혀진 청계천 사진 위에 저런 일을 하는 '노숙자'라는 낙인이 또 찍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선족과의 위장결혼에도, 신분을 도용 당해 이루어지는 각종 금융사기에도, 염전과 김양식장으로 팔려가는 인신매매에도, 노숙인을 악용하고 그 굴레를 덧씌우는 천박하고 추악한 범죄집단들을 무엇으로 심판해야 합니까? [21]

● 2003. 12. 3 '빈곤 문제 해결 과제서 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서울역농성장에서

이 기쁨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서종익(관악노인복지관 희망의집/생활지도원)

안녕하세요!

쪽빛하늘이 현기증 나리만치 높아지는가 싶더니 어느새 가끔씩 불어오는 바람에서 찬겨울의 매서움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희망의 집 가족으로 생활해온지 얼마되지 않은 시간 중에서 가장 기쁜 날이 아닐까 싶어 그기쁨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관악노인복지관 희망의 집 가족 중 한분이 오늘부로 신용불량의 멍에를 벗고 다시 새출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고령에 고혈압으로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같이 출근하며 얼마되지 않은 월급을 쪼개어 은행 빚을 갚고 나머지는 꼬박꼬박 저축하며 성실히 생활해오시기를 2년여.. 드디어 산더미 같이 큰 부채는 그분의 성실함 앞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공이산"이라는 고사성어를 난생처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번도 힘든 내색 없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오신 그분의 모습은 실무자인 저에게도 큰 감명과 가르침을 준 것 같습니다. 비록 그분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어드리지 못했지만 희망의 집 실무자로서 큰 보람을 느끼고, 다시 한 번 우리 희망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 저희 희망가족들의 박수를 받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는 그분의 모습은 제 평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실무자여러분.. 그분의 멋진 새출발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들 모두들 힘내세요!!!

축하 답글..

정말 기뻐합니다.
예수사랑

여러가지 일로 맥이 쭉 빠져 있던 터에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2년이란 세월이 정말 놀랍네요. 다짐에 각오에 통장까지 만들어 매일매일 저축하겠다고 결심은 한달이 채 못되어 어디로 가버리고 술에 절어 나뒀그는 모습은.. 그 자신 뿐 아니라 우리 쉼터 모든 사람에게 슬픔과 좌절을 주었는데(결국 그분은 퇴소했죠) 너무 부럽고 기쁜 소식이에요. 선생님의 기쁜 마음이 저에게도 많은 에너지를 주시네요. 요즈음 마음이 너무 복잡하였는데..

힘이납니다.

서정화(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실장)

어제 KBS에서 방영하는 "한민족리포트"에 미국의 L.A.에서 거리노숙인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클로리아 김이라는 분이 나왔어요. 밤마다 따뜻한 스프와 빵 등 간단한 음식을 싸들고 차로 이동하면서 직접 전달해주면서 노숙인들을 안아주고, 시를 찾아다니며 노숙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활동을 하시더군요. 그렇게 17년째 일을 하시는 할머니는 백내장으로 침침한 눈을 비비며, 노숙인의 자활사례를 얘기하면서 힘을 내며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17년 동안 일해왔다는 그분의 말씀, 지난났을 그 세월, 그 세월을 느끼며, 지금 저의 활동을 되돌아 보았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 번 보세요.(실은 처도 처음부터 보지는 못했습니다)


짹짹

조상윤(신당복지관 부자쉼터/생활지도원)

진짜 박수쳐 드려야할 일이네요. 그분의 앞날이 이제는 행복한 일들만 함께하기를.....


간만에 기운나는 소식

김진미(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과장)

가끔 이런 소식 들으면 우리가 하는 일이 그냥 지루한 삽질일 뿐인 건 아닌 것 같아 힘이 좀 나요. 요즘은 게시판이 워낙 시끌시끌하다 보니,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하지 못한가? 라는 질문을 몇 번씩 던지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었거든요. 뭐 인터넷 논란은 우리 '작업방식'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서 꼭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와중에 오고가는 얘기들, 표현의 수위, 내용의 왜곡 등등은 정말 힘 빠지잖아요. 하여간, 그 어르신에게 노력한 만큼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기기 를 바라구요. 기쁜 소식 생기면 얼렁얼렁 알려 주세요. 나눠가지게. (참, 이런 소식은 공개에 체크해 주세요. 우리끼리만 알면 아깝잖아요~) 

축하드려요

김정곤(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작은 성공에 축하드려요. 관악노인 복지관은 터가 좋은가 봅니다. 좋은 선생님에 훌륭한 가족들이 계시고. 좋은 일만 계속 생겼으면 좋겠네요. 


기쁩니다.

서병철(양평쉼터/생활지도원)

오랜만에 기쁜 소식을 들으니 하루가 즐거울 것 같아요.

서종의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곳 양평쉼터에서도 함께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단풍나무가 크기를 멈추고 다른 나무들에게 낙엽으로 손 들고 선언하는 이때에도 사람은 매일매일 변하고 자라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런분의 성과와 소식으로 오늘 제가 기쁘게 좀더 크게 자랐습니다.

가심이 따스하게 부글거려 저녁에도 춥지 않을것 같습니다. 관악 파이팅! 

삶터이야기 · 들

양평쉼터에서 한 시인(?)이 전하는 편지...

서병철(양평쉼터/생활지도원)

편지 · 시인 햇볕이.. 파란 하늘아래..

가을비치고는 너무 많은 비가 어제 내렸습니다. 가지가지 좋지 못한 소리와 사람들의 별의별 원망을 들으며...금 강아지풀 네댓 톨의 씨앗을 붙이고 이제 힘들었던 고개를 새워 들었습니다. 영기성기 드문 모습이 귀엽기도 합니다. 언젠가 '봄은 빛나는 자연의 얼굴'이라면 지금의 '가을은 풍성한 자연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랄 것도 없이 부지런함이 임자인 것은 당연하고요. 가을엔 눈을 밝게 닦고 산뜻한 마음으로 산으로 들로 간다 했습니다. 엇그체처럼 가깝던 여름 어느 날, 소낙비를 피하도록 어깨 품을 내어주었던 그 밤나무가 빛나는 밤색으로 아침 발길을 잡습니다. 금방 작은 아프고 시린 상고머리 뒤통수가 하얀 햇 밤톨 들! 풀숲에 숨어 들어간 밤은 있는 그대로 또한 자연의 보물임을 서둘러 확인합니다. 진드감치 서서 눈으로 두리두리 훑어보면 잇까, 잇까!

질러대는 그 소리 쌓여가고 망태기도 차고 주머니도 차고 마음도 목적이 채워지고... 하나의 멍칫거림도 없이 풀숲에 손을 넣어 집어내면 됩니다. 엄지 문턱에 가시 좀 박히는 것은 당연 질차로 간주할 마음이면 준비는 끝이고요. 더구나 내일은 큰 망태기를 가져와야지 하는 생각이 들면 알뜰한 사람이 틀림없고 더더군다나 산 짐승들과 뒤에 오는 사람의 '똥'은 남겨야지 까지 마음을 쓴다면 넉넉하고 조화롭기로 더할 나위가 없지만 말입니다. 허리 굽혀 줍다보면 머리에 얼굴에 온통 거미줄을 뒤집어쓰고 단숨에 언덕의 옷뿔메기까지 올라서게 됩니다.

'밤줍기'의 으뜸은 알이 여물고 빠져 떨어지는 '소리'를 도중에 듣는 것인데요. 바람 진 잎을 무심히 톡! 치며 숲에 박힐 때는 사람을 움찔 놀래키기도. 기분 좋게도 하니 말입니다. - 푸럭!

어린 시절 밤나무는 소두엄 쳐둔 마당에 서서 저녁 내 지붕에 대고 북을 두드렸고 우리는 밤잠을 설치했습니다. 짝 붙는 눈을 비벼 뜨고 새벽 그림자 서둘러 밟으며 깨진 소죽 바가지에 소복하게, 밀둥이 흰 알밤들! 때를 맞춰 바지랑대 휘휘 춤추며 돌아가는 날. 키 보다 큰 쟁이를 어설피게 쓰고 부지깽이 집게로 삼태기에 주워담던 날. 내어 맨 발갈이 암소는 느린 하품으로 그 밤색의 윤기나는 등에 쏟아지던 가을 햇살을 만나게 즐겼습니다...

손 박힌 가시는 저녁 먹고 식구들 한자리에 엮이기(마누라) 무릅 베고 빼내야 제 맛입니다. 녀석들 눈치 아랑곳없이 오순도순 이야기를 하면서... 주머니 불룩하게 손으로 부여잡고 어설피게 걷는 길가에 노란 괴불주머니 여직 해찰하고 있는 사이사이마다 고마리꽃이 하양색으로 분홍색으로 세 들어 어우러졌습니다. 이쁜 저 꽃들을 입가에 대고 물면 파란색으로 맛나게 부서질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4]

편지2 · 인기가 많은 아침은 맑음을 기대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눈을 가린다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저한테는 없는 것이 어렵습니다. 동쪽 산을 두어뼘 딛고선 아침해도 얼굴빛이 하얗도록 여직 안간힘을 쓰는 중이라 나는 사방으로 백 걸음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산봉우리들 바위계곡 나무 풀 흙 등이 뭔가 중요한 회의를 하다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깜박 날을 새버렸을 때 사람들이 깨어나가기 전에 서둘러 취하는 비상조치가 아닌가, 특히 부지런한 농부들이 있는 곳 시골에서는 더욱 일찍 그리고 진하게 산 아래로부터 막을 쳐서 뽕가를 숨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을이라면 산이 색동저고리로 옷을 갈아입는 시간쯤 될 수도 있겠다 짐작은 해 봅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안개가 그렇게 몇 번 내리고 나면 어느새 가을산은 온통 알록달록한 새 단풍으로 옷 같이 입고 나서니까요.

그런 날 대문 앞 상수리나무 밑에 서면 비가 내립니다. 멀리서 반대편 하늘이 파랗으로 벗어질 때까지, '늘어지는 방울' 빗물의 크기와 거리에 따라 잎의 크기

와 모양 넓이 길이 두께에 따라 그 소리 각각 다르지만 그 중에 으뜸은 세동백나무 넓은 잎에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새벽에 들은 살 비비며 부두막에 앉아 붙적며 들던 나뭇가지 다투는 장구가락, 짝- 두 록 토 닥!

강아지풀이나 돌피 쇠무를 고들빼기 썸바귀 엉경귀 개구리자리 명아주 새팔 실망초 쥐꼬리망초 가막살 쪽 털여뀌 돼지풀 물억새 달뿌리풀 고마리 그리고 나도송이풀 등굴레 등도 어김이 없습니다. 쉽지 않은데 오늘 보니 햇빛은 맑고 깨끗한 허공의 흰색입니다. 엇그제 사람이 한번 다녀간 후로 겨울 김장배추가 너나 없이 소담하게 키를 맞춰 발걸음에 화답하듯 다튀 자랐습니다. [4]

편지3 · 철썩어 있는 것이

늘상 하던 산책 후에 정문을 올라오는데 경비서는 김 선생님이 한마디 합니다. "그래도 빈손은 아니로구먼" 손에 든 민들레 몇 줄기와 한 주먹 알밤을 보이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쓰이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민들레를 보고 있노라면 "철없다"란 어른들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철없다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천진하다는 '순수함'을 나타내기도 하는 좋은 의미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 '딱서니'가 붙으면 반대로 상황에 걸맞지 않은 즉 어른답지 못한 행동으로 기대했던 사람을 실망시킨 경우를 비유하는 약간의 부정적인 의미가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옛날 농사가 생활의 주가 되던 시절에 시도 때(절기)도 맞추지 못하고 엉뚱하게 말썽을 부리는 '날씨'를 두고 원망하는 말에서 흘러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철(절기)이 딱히 맞춰 오는 때가 없구나"

예를 들면 한 여름에 우박이 내려 예의 그 농사, 특히 과일, 채소를 망치는 경우, 또는 빛이 많이 필요한 가을 문턱에 비가 너무 내려서 곡식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쭉정지만 낱게 하는 경우 등입니다. 명아주 돌콩 현삼덩쿨 들깨 방동사니 강아지풀 등이 때를 맞춰 성장을 멈추고 남은 힘으로 치열하게 열매를 맺어 다음을 준비하는 사이 논두렁 반듯이 깎은 자리 민들레가 소복하게 새싹을 키웠습니다. 농부들의 부지런하고 혹은 귀찮은 사정도 있겠지만 열매를 맺기 전에

썩썩 베어버리면 다시 썩을 티우고 꽃을 피우려 하는 것은 야생 것의 본능인데 그 쪽에서 보면 사정 두지 않는 사람이 이런 때는 오히려 철없는 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람을 기다려 날아가려는 찰라 그 아슬아슬한 홀씨대공을 비켜서 '못 말리게 봄 맛을 돋구는' 오록보록 모듬 진 곳으로 한줌 속아 온 것입니다. 가까이 눈두렁 아래쪽에 꿩짓자루 서너 번 길이로 '봄노랑색' 달맞이도 꽃을 피워냈으니 그 치열한 야생의 생명력을 찬 하기 앞서 세상이 온통 '철없는 것들 뿐'이라 누군가 나무랄 것 같습니다. 그 마음 알기라도 상수리나무 '그래그래' 고개를 흔드니 이슬이 '맛다맛다' 비로 떨어집니다.

집으로 가는 오르막을 지날 쫘 '리기다' 소나무 떼편을 흔들고 나온 바람결에 언뜻 향이 납니다. 죽어서도 천년을 가는 그 술향이 선하게 흔들며 깨우는 게 있습니다. 지금껏 일본에서 온 나무라 그 출처를 들어 애써 제겨 두기도 하고 이어온 '육송'과 비교하여 일부러 구분하고 무시하기도 했는데, 그 나고 자라 어떠한 바람도 없이 '철 맞게' 그늘을 만들고 숲을 이루고 품을 내어 온갖 것을 쉬어 가도록 하는 것이 여느 나무와 다르지 않으니 그런 시시한 구분이 나무에 든 사람에든 세삼 부질없을 듯합니다. 41

편지4 · 아삭한 고구마 김치

"인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연이 인간을 밖으로 끌어내어 그를 비추기 전 까지도 자연은 인간에게 아무 것도 아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연과 함께 있어서 자연스럽다는 말로 어설픈게나마 풀어봅니다.

지금 가을이 사람을 다시 그곳으로 애절하게 끌어냅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 서둘러서 풀 짓은 밭에서 고구마 줄기를 한 움큼 건어왔습니다. 잠간사이에 죽히 두서너 팽주리는 넘게 건어다가 몇 분이 깔고 둘러앉아서 연한 놈으로 '순'을 따내었습니다.

역시 여럿이 모여 앉아서 일하는 곳에서는 항상 재미 지고 살가운 생활 이야기가 일손을 뒷전으로 밀어내게 되고 손놀림에 추억이 들쭉입니다. 어린 시절 식구들과 함께 고구마 줄기를 벗기던 이야기에서부터그러니까 이슬 마르기를 기다려 아버지 풀바작에 축 늘어지게 우뚝우뚝 뜬어 고살을 넘실대며 지나온 것을 토방에 부려 놓으면 살짝 내려선 따신 햇살 아래 무릎 마주 세운 어머니와 함께 그것을 벗기던 이야기들.....

"얼(막) 버무려 놓은 아사삭 한 김치, 참 맛있었지"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를 잡아가고..... "남지기는 말뚝 차지한 소에게 획 던져주면 도리질에 어금니 빠근하게 먹어 제졌지" "구정물을 한 다라는 죽히 컷응게"

줄기를 벗겨서는 김치를 담가 먹고 삶아서 말렸다가 야채가 부족했던 겨울에 무쳐 먹는 방법 등, 각 지방마다 요리도 다르고 풍습도 약간씩 다르니 결국에는 소리가 높아지고 그럴라치면 뜬금없이 그놈의 정치이야기까지, 대개 정해진 순서입니다. 그래도 언제나 일을 하면서 다양한 인생이며 어설피고 허탈할 것 같은 마음들을 조금씩이나마 풀어놓기도 하니 그저 절절한 웃음으로라도 그렇게 아물어가기도 할겁니다.

나락도 서걱서걱 말라 가고 논바닥에 부지런했던 장화발자국도 깊게 말라 갑니다. 물소리는 바람에라도 타고 갈 듯 가벼워졌고 태풍으로 쓰러진 나락 더미에 앉았던 산비둘기 몇 마리가 뭘가를 몰래 서두르는지 발 기척에 우다닥 우다닥 날아갑니다.

갯대 도 편안한 자세로 몸을 말리는 사이 꼬신 내가 몽실몽실 날것 같아 바람 가는 쪽으로 코가 먼저 벌름거리고 쫓아가게 되고 뒤이어 고구마 순을 까맣게 태우는 무서리가 내리고 산이 안개를 벗고 나올 쫘 그늘진 냇물은 연기 같은 김을 실실 흐느적거리며 뿜어냅니다. 밀동지가 가지런히 묶인 벼단들이 아침이면 마른논에서 줄지어 기대섰다가 햇살 그림자 기우는 대로 건장건장 움직이며 눈두렁으로 막 걸어 나올 것 같습니다. 42

한울타리사람들 이야기

박정수(한울타리사람들/대표)

상념(10.12)

새벽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2년 전 제가 보듬고 있었던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병거지 모자에 나이든 모습 자체였습니다. 여전한 모습이었지만 지나간 시간만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젊어서 열심히 사셨다고 무용담같이 이야기를 하시던 분으로 기억하는데 ...



한 몸 건사를 위해 주일날 일용직을 나가시는 모습이 다니엘을 잔하게 합니다. 역전에 같이 내려 용역 사무실에 가시는 버스를 타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배웅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가족들이 일을 나가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과 일요일이라 하여 쉬는 분들이 보입니다.

다니엘(박정수선생님의 카페 애칭/이하동일)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오늘 같은 날 잠시 상념에 젖어봅니다. **44**

겨울로 가는 길목에서(10.22)

다니엘이 생각을 할 틈의 여유도 주지 않고 계절은 먼저 앞서 간다. 시간의 여유를 준다면 차근차근 준비를 할텐데 왜 그리도 바쁜지 무심하고 야속하기만

하다. 여름의 홍수를 지난 지 얼마 되었다고 벌써 겨울 채비를 해야 하니 다니엘 요즘 재정신이 아니다. 거실이 너무 차가와 봄철 이삿짐센터에서 주어진 카펫을 찾아내 햇볕에 말려 깔아 놓았다. 하나의 준비를 하는데 왜 그리도 시간과 신경을 써야하는지 이래서 집안 살림은 끝이 없나보다. 가족들 겨울이불 바꾸기와 겨울 의복 챙기기 또한 겨울 김장준비... 이제 앞으로 추위가 본격적으로 찾아오면 작년처럼 연탄난로를 설치하고 연탄을 때야 할 것이다 또한 가스 비를 걱정해야하는 옵션의 선물까지 있으니 참으로 겨울은 그리 반가운 계절은 아니리라 ^^ 그래도 겨울이 되면 쉼터가 따뜻해진다. 일거리가 줄어들어 쉼터에서만 지내다보니 쌀이 딱딱 줄어드는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쉼터 내에 사람들이 복적거리고 여기저기 떠드는 소리가 다니엘은 왜 그리도 행복하게만 들리는지...

다니엘은 어쩔 수 없는 타고난 팔자라 생각하며 올해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또 한번의 겨울을 맞이 하리라.. **44**

무념(10.25)

일년을 한 가족처럼 생활 했던 분이 몇일 전부터 들어오지 않아 걱정을 했는데 귀향을 한거 같기도 하고.. 내 탓이려니 생각을 해도 섭한 마음은 어쩔 수없다. 수많은 사람들을 거두며 노숙인들과 함께 생활을 한지도 5년을 넘어 섰건만 이러한 일이 생기면 그저 마음의 기운이 빠진다. 수중에 돈이 있어 갖겠지만 보통의 가치관으로 해석 할 수 없는 일들을 수도 없이 겪다보니 때론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고 평상시의 생활에 움직이곤 한다.

무디어 진다는 것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감정의 감각이 둔해지는 것을 느낀다. 하루이틀 한달 두달... 일년인데.. 그저 가족의 울타리에서 웃음도 웃고 상처도 생기고 보듬은 날들이 참으로 길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 가슴 한 켠에 쌓일 이야기 꺼리지만 지금은 참으로 내적 반성이 더 크게 와 닿는다. 더 더 더 잘해줄걸... 그의 삶에 아픔이 있지 않고 행복과 시온의 대로가 있길 기도한다.

끝이 없는...(11.1)

동대문을 밤10시가 넘어 부랴부랴 찾아갔다. 하루 종일 피곤한 몸이었지만 갑자기 사라진 문수를 발견했다고 연락을 받은 터였다. 삼촌이라고 몇 일을 생활하며 따라다닌 아이였는데 거리에서 생활을 오래 하다보니 쉼터에 적응을 하기 힘들어서 인지 말없이 없어져 걱정을 하고 있었다.

지난번 쉼터에 올 때에도 얼굴과 목에 피부병이 있어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해주었는데 이번에 보니 다시 피부병이 번져있었다. 옷은 맞지도 않은 커다란 옷을 걸치고 무엇이 그리 좋은지 거리의 동생들과 함께 웃고 있었다. 그래도 미안했는지 웃음으로 때운다. YMCA상담선생님들과 함께 쉼터에 다시 입소를 시키려 했지만 지금은 입소를 해도 다시 나갈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어 본인이 원할 때 도와주자고 결론을 내리고 지하철 막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거리에서 오랜 생활을 한 문수를 위해 신경을 써보지만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상황이 되면 무능력해보이고 힘이 빠진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 그저 안타까운 마음이 들뿐이다.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어 한 몫을 하기까지 많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인데 다니엘은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에 또 한번의 좌절을 느낀다. [21]

독백(11.17)

눈물이 날만큼 요즘 많이 심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었습니다. 역시 혼자라는 것이 한계인지 아님 다니엘이 부족해서인지... 비록 작은 부분이지만 그러한 일이 지속될 때 혼자 삭히기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일년 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숟의 밥을 먹은 사람의 말 없는 외유와 일탈의 연속... 또한 상식의 가치관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젊은이의 도벽과 배신. 아... 수없이 부딪치고 겪는 일이건만 닥칠 때마다 마음의 상처는 깊어집니다.

어디까지 다니엘이 더 도를 닦아야하는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

니엘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위로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고마움의 표현을 받고 싶습니다. 큰 사랑이 아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란 말을 듣고 싶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의 소중함을 알기에 회생으로 가꾸어가는 울타리를 헤집어 놓고 아니 혼들어 놓고 갑니다. 뒤에서 혼자 감당하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금전적 물질적으로 헤일 수 없는 마음의 커다란 빔을 주고 갑니다. 어떠한 일보다 참으로 힘들다고 다들 말 하지만 그래도 몇몇은 다니엘을 위로합니다. 그 소수의 몇몇을 위해 다니엘이 또 삭히고 이해라는 이름으로 가슴에 놓아야 하는 가 봅니다. 다니엘이 강아지를 키웁니다. 왜 키우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니엘이 힘들면 강아지에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다니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를 받았던 강아지가 지금은 없습니다. 다니엘도 사람인데. 두 번 태어나서 쉼터를 또 한다면 남들에게 인정받고 보람 많은 다른 쉼터를 하고 싶어집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을 다니엘이 하는가 봅니다. [22]

마을잔치를 마치고...(11.24)

11월20일 지역 내 노인 분들을 초청하여 식사와 침술 그리고 파마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참사랑선교단의 침술과 파마 그리고 영양교회의 주방봉사. 다니엘이 밤에 일 나가는 곳에서 수정과와 과일 부스러기의 빵과 고기, 햇살 드롭인의 과일과 생활필수품, 한울타리 가족들의 밤새 만든 멸치 육수 등... 행사가 아름답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준 분들에게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일년여를 진행하면서 주민들과 하나가 되며 지역에서 도움을 받는 위치에서 오히려 도움을 주는 또한 혐오시설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행사가 되어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처음 쉼터를 개소하며 지역 내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나 하는 생각과 노숙인 쉼터이기에 넘비 현상을 생각을 안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지역 내 행사를 통하여 이웃이라는 것으로 받아 준 지역주민들이 마냥 고맙기도 합니다. 행사를 진행하면서 통장 반장님들이 음료수를 사오고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다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편

견을 깨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 편견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닌 깨기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개인 혼자 준비하고 행사를 치루는 것이 그리 쉽지 않고 힘든 점도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쉼터 운영과 지역 내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위하여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얼마나 뛰고 열심을 내는지 몇몇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남아서 아니면 미래를 위해 저축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금전적으로만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금전 만능주의가 되어지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노숙인 관련 분들 외에 일반인들이 무관심과 하나 없는 후원 속에서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임을 또한 사회로 가정으로 복귀를 회박하여 보람도 적지만 남이 아닌 내 가족 중 어렵고 힘들다면 도움을 손길을 쥐야하지 않겠습니까. 남이라고 생각되어지는 편견과 마주하고 싶은 마음도 또한 해결코자 하는 시간도 없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재활을 할 때 그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어느 일보다 매달리는 것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쉼터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지역 내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작했던 행사가 지역 내 행사로 되어 다니엘이 얻고자 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많이 얻었습니다. 쉼터 가족들 위해 시작했던 일이었기에 충분히 만족합니다. 쉼터 가족들에게 가끔씩 말을 하곤 합니다. 다니엘에게 고맙다고 하지 마라 그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으로 다니엘은 기쁘고 고마운 일이다. 또한 다니엘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기에 오히려 다니엘이 더 고맙다! 란 말을 합니다. 욕심과 이해 타산이 없기에 다니엘이 더 보람 있고 행복한지도 모릅니다. 진정 행복한 사람은 다니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21**

☞ 거하게 돈을 쓰셨습니까. (12.8)

인연이 되어 삼촌이 되고 형이 된 가족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만남이 오래지 않아 아직 서먹 할 수도 있는데 많이도 따라주고 형으로 삼촌으로 대해주시 많


은 정이 갑니다. 다니엘을 형으로 여기고 함께 살아가는 이 친구는 겉으론 멀쩡해보이지만 하루에 네 번씩 5시간 간격으로 당뇨 인슐린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자기가 쓸 용돈이라도 벌라치고 일을 나가면 쓰러지기도 하는 몸을 가지고 있으니 본인은 한참 나이에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이 들겠습니까? 다니엘이 보기엔 장기적으로 몸이 좋지 않다보니 우울증에, 또한 내일에 대한 삶의 의욕도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일을 할 나이에 건강이 좋지 않아 나약해지는 마음을 추스려 주기위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라도 하라고 다니엘이 보채니 아마 힘이 들겁니다.

그래도 다니엘이 자기를 위해 하는 잔소리임을 알겁니다. 몇일 전보니 하나 있는 신발 밑창이 배가고픈지 찌억 갈라져 있는 것이 다니엘 눈이 보이니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삼촌이라고 하는 스무살 갓 넘은 녀석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기특한데가 아주 많네요. 지금까지 쉼터에 응급적으로 상담소등을 통하여 침대와 이식대 초반이 몇 명 들어 왔는데 아직 사회에 대한 가치관과 사회성이 부족해서인지 아무 말없이 나가거나 대책없는 생활로 다니엘이 힘들었습니다. 헌데 이번에 들어온 녀석은 다니엘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꼭 자기 집 같이 생활을 합니다. 얼마 전엔 작은 공장에 들어간다고 하여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잘 다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 나이가 있으니 공부 생각이 있느냐고 하니 공부도 하고 싶다며 야간 대학 알아봐 달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이제 학비까지 보태야 하니 걱정거리가 더 추가 되었네요 ^^ 몇일 전 일나 갈 때 보니 여름용 바지를 입고 있어 바지 하나 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이라고 부르는 동생과 삼촌이라고 하는 조카하고 동대문 쇼핑센터에 다녀왔습니다. 동생에겐 이만 오천원 하는 까만 신발을 그리고 조카에겐 바지를 사주려 했는데 윗도리를 사고 싶다고 하여 아이보리 색으로 이만 삼천원에 사주었습니다. 쇼핑을 하며 거나하게 순대 곱창도 먹었습니다. 가장 추운 날 씨라는 방송말로 어찌나 추운지 오돌오돌 떨면서 다녔습니다. 그래도 머가 그리


좋은지 다니엘과 함께 행복을 쇼핑한 기분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신발이 사고 싶고 옷도 사고 싶었는데 자꾸 얇은 지갑 때문인지 아예 생각을 접었습니다.

동생과 조카가 그리 비싸지도 않은 신발과 옷에 얼마나 좋아하고 행복해 하는지 집으로 오는 시간내내 웃는거 같아 보이더군요. 다니엘 위해 비록 쓰지는 못했지만 열배 스무배는 더 따뜻함을 행복함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행복을 느끼고 사는 다니엘이 이 세상 가장 행복합니다.

아마 잠을 자면서도 좋아 할꺼 같습니다. 

한울타리사람들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실직 노숙인 재활관련 일을 양천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만 3년 하다가 서울 시와의 협의 가운데 쉼터가 운영상 어려움으로 2002년 2월 28 폐쇄 되었습니다. 실직 노숙인들의 재활에 있어 그룹홈의 필요성을 느끼던중 제가 살고 있는 전세를 빼어 미지원 시설인 한울타리 사람들을 2002년 3월4일 노숙인들의 지원단체 관계자분들 그리고 노숙인들과 동거동락하는 실무자 선생님들 50여분 모시고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2003영등포거리영화제 마지막날 거리한마당 풍경

이윤나(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날씨도 더 없이 맑고 화창했던 지난 주 토요일... 몇일 전까지 매섭던 칼바람은 어디로 가고... 봄바람처럼 훈훈한 공기는 한마당 잔치를 벌여내는데 딱!이었죠.



예고했던 대로 영등포 공원에 서는 잔치잔치~가 열렸니다. 10시부터 먹거리장터 설치에 무대 설치, 모금함과 접수대 설치를 끝내고... 행동하는 양심이란 자원봉사 동아리의 봉사자들이 밤새 정성껏 만드신

과전과 잡채, 그리고 성문밖 교회에서 후원해주신 육계장이 도착하고... 태진아, 디스코 메들리 뽕작테이프가 잔치의 분위기를 더욱 흥겹게 만들었습니다.

12시부터 500원 먹거리장터가 열렸어요. 모든 음식이 500원짜리 쿠폰으로 살 수 있었는데요. 아저씨들이 직접 사 드시기도 하고, 좀 여유있는 분들은 많이 사셔서 친구에게 나눠 주기도 하고, 실무자분들도 대량 구입하여 안면있는 아저씨께 건네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의 저소득층 주민들고 사 드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유모차



끌고 소풍나온 가족들... 암튼 많이들 오셔서 즐겁고 정겨운 한판 잔치에 참여 하셨습니다. 그리고, 줄서서 음식을 타 드시는게 아니라 식당처럼 테이블번호가 붙은 돛자리에 앉으셔서 음식을 주문 하고 서빙된 음식을 편안한 자세에서 식사를 하셨지요. 힘들고 바쁜 음식주문과 서빙은 햇살드롭인의 친절하고 멋진 아저씨들이 수고 해주셨지요. 이 자리를 빌어 아저씨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야외무대로 이어져서 진행된 레크레이션과 초청공연 그리고 아저씨들의 열광적인 참여속에 진행된 노래자랑대회... 접수 시작하고 얼마 안 지나서 참가인원 15명을 넘기고요. 그 뒤로 참가하고 싶어하는 아저씨가 너무 많아서 거절하기가 너무


힘들었지요. 명키수들이 어찌나 많은지요. 답변엔 노래자랑 대회만 따로 하던지 해야되겠어요. 노실사의 문헌준선생님의 구수하고 재미난 사회로 분위기는 화기애애... 중간중간의 지원센터 이범승선생님과 햇살의 이원기 실장님의 익살스런 막간 공연이 이어지고요. 대망의 노숙인 노래자랑 일등은 바윗돌처럼 굳세게 힘내서 다시 살아보자는 의미로 '바윗돌'이란 노래를 개사하여 '힘내라. 굴러라. 노숙자여~'를 열창하신 한 아저씨가 타셨어요. 지켜보던 저도 참 감동적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실의에 빠진 아저씨들에게 많은 힘이 되셨을거란 생각이 드네요.

지난 9월부터 '노숙인은 우리의 이웃'이란 주제로 홍보전을 하고 영화제를 진행하면서.. 2달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행사를 진행한다는게 힘들고 지칠 때도 많았어요. 11월 1일은 오지 않을것 같아서 지레 겁먹고 힘빠진 때도 많았어요. 근데, 막상 다 끝내고 나니 아쉬운 점도 많고 시원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함께 행사를 주관하신 햇살드롭인과 행동하는 양심에 정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특히 여러 가지로 후원해주신 영등포보현의집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물심양면 후원해주신 영등포 홈리스 지원 단체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노숙인은 우리의 이웃... 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알려내는 과정에서 제가 새삼 느낀 것은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란 것입니다. 슬픈 영화에 눈물을 찍어내고 웃긴 대목에선 배를 잡고 웃고, 사람들 앞에서 멋드러지게 노래한 자라 뽀꼬 싶은... 부디 추운겨울 바윗돌처럼 굳센 마음으로 잘 이겨나가길 기도합니다. 참! 배지 판매 수익금은 장갑 등 겨울나기 용품을 사서 영등포지역의 아저씨들에게 나눠 드릴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행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윗돌처럼 굳세고 단단한 마음으로... 힘차게 그리고, 뜨겁게 겨울을 이겨내시길~ 파이팅~

한일교류회 리포트(7월 10일 ~ 15일)

문헌준(노숙인복지와인권실천하는사람들 대표)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한국과 일본의 홈리스·노숙 관련단체·당사자간의 한일교류회가 2003년 7월 10일부터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노 실시는 이번 한일교류회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5박 6일간 오오사카, 도쿄, 시즈오카, 일본, 요코하마 등을 둘러보며 다양한 내용과 방식으로 활동하고 일본의 홈리스 단체와 당사자가 중심이 된 활동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신선하게 다가 온 부분도 있었고, 문화적 차이로 인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잘 정리가 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다양한 이슈를 만들어 내고, 활동하고 있는 지원자와 당사자를 만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번 한일교류회에 참가는 무척이나 고무된 일이었음을 느낍니다.

본래 7월중 한일교류회 전 일정에 대한 리포트를 정리해 제출하기로 했으나 떨꺼둥이 겨울호를 통해 그중 오오사카와 시즈오카와 관련된 일부만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일정에 대한 내용은 정리가 되는대로 노실사 홈페이지를 통해 올릴 예정입니다. 그럼……

■ 7월 10일~11일 '오오사카(大阪)府'

※ 참조할 사진의 경우 떨꺼둥이 지면 관계상 일부만 실게 되었습니다.

(1) '가마가사키(釜ヶ崎)' 지역(저구)방문

일본 제2의 도시 '오오사카府'는 인구 260만으로 대구시랑 비슷한 정도인데, 우

리를 안내한 '가마가사키마을재생포럼'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오오사카府' 홈리스의 수는 98년 당시 통계로는 8,680명, 현재는 약 6,600여명 정도라 한다. 그 오오사카府내에 우리가 1일차 일정으로 방문한 '가마가사키'라는 작은 지역은 행정명으로는 '아이링지구'라 부르며, 면적은 0.62평방킬로미터에 인구 40,000~45,000명 정도가 살며, 그 중 일용노동자와 홈리스가 20,000~25,000명을 차지하는, 일반인들에게는 '가마가사키(釜ヶ崎)'라는 용어 자체가 낙인화된 매우 특별한 지역이다.

일본에서는 철근공, 목수 등과 같이 특정한 전문기술이 없는 건설현장의 대다수 일반 노동자를 '토가타(土工)'라 부른다고 하는데, 이 말이 바로 우리가 일 상에서 즐겨 쓰는 '노가다'의 어원이다. 바로 이곳 '가마가사키' 지역이 '오오사카府'에서 건설일용노동자인 토가타와 홈리스가 밀집되어 생활하는 지역이고, 그들 대부분이 50~55세 이상(참고 : 한국 노숙인의 평균연령은 38~40세인데 반해, 일본 홈리스의 평균연령은 50세)의 고령이며 독신이었다. 따라서 '가마가사키' 지역에서 건설일용노동자와 홈리스를 구분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 보였다.



사진(ID-01) 감시카메라

이들에 걸쳐 둘러 본 '가마가사키'의 거리풍경은 과거 몇 차례의 폭동- '가마가사키마을재생포럼'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1961년 폭동이 꽤나 큰 규모였다고 했다-때문에 거리 곳곳에 14대 정도의 감시카메라가 24시간 작동(그림ID-01 참조)하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여자와 아이들은 눈에 잘 띄지 않았으며, 대부분 힘없이 걸어가는 고령의 일용노동자들과 홈리스들이었다. 그래서 일용노동자들이 홈리스로 전락하는 과정이 이곳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어 그들 간에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듯 보였다.

(2) '가마가사키' 지역의 아이링센터 방문(사진 1D-02~ 1D-03 참조)



사진 1D-02 아이링센터 1.

사진 1D-03 아이링센터 2.

아이링센터(아이링 직업안정소)는 '오오사카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취로지원센터의 기능이 크고, 그 외 의료지원과 복지지원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는 행정적 지원센터이다.



사진 1D-04 노동복지센터

아이링센터의 핵심 기능인 취로지원은 2층에 있는 노동(고용)복지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노동복지센터(사진 1D-04 참조)를 통해 구직을 하기 위해서는 '일용고용보험수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오오사카府'내 일용고용보험수첩을 소지한 소지자는 11,000~12,000여명 정도이다.

수첩소지자 중 하루 3,000명~5,000명이 방문해 250여명 정도가 2층의 노동복지센터에 있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구직 알선을 받는다고 한다.

노동복지센터에서는 순번제로 하루 250명씩 취로지원·알선을 하지만 1인이 한달에 3회 정도밖에 일을 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구직을 하지 못하는 나머지 수천에서 만 여명에 달하는 일용노동자들은 이 건물 주변에서 봉고차를 가지고 온 업자들과 '테하이시(手配師)', 혹은 '닌뿌다시(人夫出)' 등으로 불리우며, 야쿠자들이 낀 중간착취를 하는 불법 노상 인력파견업자·직접 그날그날, 혹은 길면 1~3주 정도의 일거리에 대해 일당과 '함바'라는 기숙사의 가격 등을 결정해서 떠난다고



사진 1D-05 분배센터

나 하천의 풀베기, 도로청소, 버스정류장이나 주차장을 청소 하는 일 등이며, 일당은 대략 5,700엔 정도이고, 작업시간은 오전10시~3시까지라고 한다. 그리고 노동복지센터의 경우 NPO 가마가사키지원지구(아래 (5)번 참조)와 사회복지법인이 함께 민간위탁형태로 운영을 총괄하고 있었는데, 지역유지나 일반인들 중 채용한 100명의 스텝이 있고, 7~8명 당 스텝1인이 지도원으로 결합해 특별취로사업을 나간다고 한다.

아이링센터 방문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일용노동자들에게 '일용고용보험수첩'을 발급해 실업보험을 지급하는 부분인데, 일을 하는 날은 고용한 업주가 실업보험인지를 수첩에 붙이게 되는데, 앞선 2개월 동안 수첩에 인지가 붙은 날, 즉 일을 나간 날을 합쳐 26일 이상이 되면 그 달에 실업보험급여(=실업수당)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실업수당을 통해 법정 최저생계비(약 130,000엔)를 보장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인데, 한편으로는 근로능력이 있는 일용노동자의 노동력을 보존해 항상 가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한다.

오전 11시쯤 되면,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일용노동자 수백명이 아이링센터에 모이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하는데, 월 8천엔 정도가 이곳에서 실업수당을 받고 있고, 일본전체에 5만명 정도의 일용고용보험수첩 소지자가 있고, 이곳 '가마가사키'는 약 11,000~12,000여명 정도가 있다고 한다.

(3) 입점자리 기능을 하는 '가설주택'과 민간의 무림식사업



사진 1D-06 가설주택 외부



사진 1D-07 가설주택 내부

홈리스 지원시설(shellter)인 '가설주택'이라 불리는 시설(사진 [1D-06]~[1D-07] 참조)은 응급잠자리로서의 기능을 하는 듯 했고, 저녁 6시에 들어가서 새벽 5시에 나오도록 되어있으며, '오오사카' 시내에 이러한 응급잠자리 기능을 하는 '가설주택'이 3개소가 있다고 한다. 우리가 방문한 '가설주택'은 약 230여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고 했으며, 3개소 모두의 수용능력을 합치면 1천명 가까이 되지만 태부족이며, 특히 일이 전혀 없는 겨울철이 문제라고 했다. 우리를 안내한 '가마가사키재생포럼'의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오오사카'에서만도 1년에 약 300여명이 노상에서 죽어간다고 한다.

무료급식(다끼다시)사업은 주로 노동조합, 민간복지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둘러 본 '가설주택' 인근의 사각공원이란 불리는 근린공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거리무료급식(사진 [1D-08] 참조)의



사진 1D-08 무료급식(다끼다시)

경우 하루 두 차례(오전 11시/오후 5시), 약 250~300여명이 이용을 하는데 아주 묽은 죽(가끔 야채가 조금 들어가는 정도)을 나눠 주고 있었다.



사진 1D-09 실내무료급식소

거리 무료급식소 이외에 프란치스코수녀회에서 실내무료급식소(사진 [1D-09] 참조)도 둘러보았는데 60세 이상의 노년층이 이용할 수 있었다.

(4) 자원자 그룹인 '원기백배 넷'과 당사자 그룹인 '쯔끼미소의 모임'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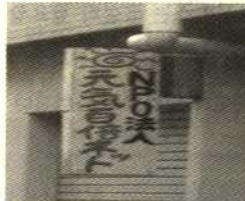


사진 1D-10 원기백배넷

'원기백배 넷(사진 [1D-10]~[1D-10] 참조)'은 ① 이미 65세 이상으로 생활보호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개호(간호)서비스 제공과 일상생활지원을 하고, ②65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취로지원을 주 활동내용으로 하고 있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NPO)인데, 이 단체의 활동을 이해하려면 일본의 '생활보호법'과 '생활보호법'내에 있는 '개호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다.



사진 1D-11 원기백배넷 실무자

일본의 경우 '생활보호법'내에 '개호보험'제도가 있는데, 이는 40세 이상 국민이 의무납부하는 개호보험에 의해 고령자, 환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helper' 자격(1급과 2급이 있음)을 취득한 helper가 주당 몇 회씩 집에 방문하여 요리, 세탁, 목욕 등의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령자가 많은 일본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복지제도이며, 개호보험사업을 정부가 직접하지 않고 NPO나 사회복지법인 등이 맡아 위탁운영 하고 있었다.

NPO '윈기백배 넷'의 경우 '카마카마 개호(간호)'라는 공식 사업명으로 '가마가사키' 지역에서 일용직 생활을 하는 노상생활경험이 있는 중년 또는 고령의 남성들 중에서 생활보호법을 통해 거주보호를 받고 있는 고령자에 대하여 간호와 생활지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들이 자격을 취득해 홈헬퍼로서의 취로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도 점차 홈헬퍼(도우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어나리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지역의 가난한 계층이 그들 스스로 그 지역의 가난한 계층을 도울 수 있도록 홈헬퍼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들었다. 또한 향후 노숙인을 포함한 빈곤한 주거불안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윈기백배 넷'의 사례처럼 거택 방문을 통한 개호서비스는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특히 노숙인의 경우 대체로 일상적인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사회성이 부족한 등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홈헬퍼 제도가 남다르게 느껴졌다.



사진 1D-12 쓰끼미소의 모임

'쓰끼미소의 모임(사진 [1D-12] 참조)'은 생활보호법에 의해 생활보호를 받아 아파트에서 거택 생활을 하는 거택생활 당사자들 간의 자조모임적 성격의 모임인데, 현재 회원 규모는 지원자나 후원

회원 쯤 되는 찬조회원 70여명에 정회원 30명 규모이며, 정회원 모두가 생활보호를 통해 거택보호(아파트 생활)를 받는 거택자들로써 그들 스스로가 서로 돕고 상호부조하는 방향의 자조모임인 '쓰끼미소의 모임'을 구성해 생일도 챙기고, 안부확인과 같은 생활적·정서적 지원을 한다고 한다.

마침 우리가 방문했을 때 생일잔치를 함께 준비 중에 있었는데, 잔치를 준비 중인 '쓰끼미소의 모임' 지원자인 신타로씨(사진 [1D-12])가 일본의 경우 생활보호를 통해 주거보호를 받는 홈리스들의 급여를 착취하는 야쿠자 조직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해

(5) NPO '가마가사키지원기구'와 블루텐트촌

'가마가사키' 지역에는 세 개의 노동조합 조직이 있다고 하는데, 전국일용노동조합협의회의 가마가사키일용노동조합(釜日勞), 전항만(전일본항만노동조합)의 니시나리(西成)분회, 그리고 가마가사키지역합동노동조합(釜合勞), 이상 세 조직이라고 한다. 이들이 대체로 홈리스에 대한 무료급식(다끼다시)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지역노조의 일상 활동이라 할 수 있는 상담사업(주로 임금체불, 산재보상 등 문제) 등을 기본적으로 비슷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



이 세 조직 중 가마가사키일용노동조합(釜日勞)이 노조 부설로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 바로 특정비영리 활동법인인 'NPO가마가사키지원기구(사진 [2D-01] 참조)'이며, 이를 통해 쉼터도 직접 운영하고 있고, '反失連事務所(블루텐트촌

사진 2D-01 NPO가마가사키지원기구 내에 위치-사진 [2D-02] 참조)'를 만들어 실업운동도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앞서 설명한 '분배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고, 교섭을 통해 55세 이상 고령자청소사업을 만들어 '분배센터'를 통해 하루 218명의 일을 만들어 취로지원을 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사진 2D-02 블루텐트촌

폐품수거와 자전거수리 등의 일거리를 만들어 홈리스의 자립생활을 추진하고 있는 등, 필요하다면 오오사카府와의 직접 교섭을 통해서라도 다양한 취로지원사업을 만들어 빨리 무척이나 노력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2일째 되는 날, 시즈오카로 떠나기 전 둘러 본 오오사카府 청사 앞의 무려 250미터에 달하는 긴 천막촌(사진 [2D-03] ~ [2D-16] 참조). 이른바 홈리스(野宿者)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블루텐트촌'의 경우도 'NPO가마가사키지원기구'가 관계하고 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때로는 오오사카府를 상대로 홈리스들의 문제를 주제로 장기교섭을 벌이고, 그 기간동안 지원자들이 블루텐트촌에서 함께 야영농성을



사진 2D-03 블루텐트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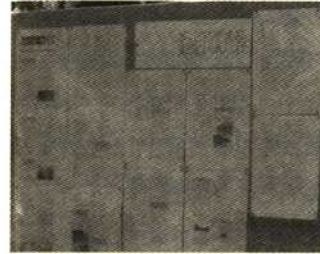


사진 2D-04 블루텐트촌 내부



사진 2D-05 알루미늄 캔 수집

을 하기도 한다고 한다. 홈리스들의 블루텐트촌이 매우 조직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한국적 상황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무척이나 놀랐지만, 블루텐트촌이 자체적인 사



무소를 갖추고 공동식당과 공동취로-알루미늄 캔 수집과 같은(사진 [2D-05] 참조)-를 통해 블루텐트촌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 인상 깊게 느껴졌다. 천막 바깥에 붉은 색 스프레이로 씌어진 "노상에서 더 이상 죽을 수 없다!!"와 "취로를 중

사진 2D-06 블루텐트촌앞 계사판 심으로 한 일자리를 달라!!"와 같은 구호도 인상 깊게 다가 왔다.

가마가사키일용노동조합(釜日勞) 부설 'NPO가마가사키지원기구'의 경우 오오사카府를 상대로 쉼터를 더 많이 건설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올 8월에 통과된 '홈리스지원법'에 대해서는 "최초 의도한 취지의 자립지원법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또한 현재 연간 약 10억엔 규모의 민간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10배인 100엔으로 확대해도 부족할 정도로 일용노동자와 홈리스 문제가 심각하지만 사회적 합의와 인식의 벽이 너무 높아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사진 2D-07 'NPO 가마가사키지원기구' 사무국 'NPO 가마가사키지원기구' 사무국(사진 [2D-07] 참조)을 방문해 약 3시간 정도 한국과 일본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대체로 '홈리스자립지원특별법'에 대해서는 비판적 목소리가 높았다. '홈리스자립지원특별법'에 대한 'NPO 가마가사키지원기구'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기존제도로 안되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드는 것인데 구체적이

고 특별한 대책은 쪽 빠져 버린 법이라고 혹평을 했다. 실제로 특별법이 없더라도 현재의 제도를 잘 활용해도 되는데, 공공근로의 경우 시장경제와 맞지 않는다는 논리로 정부는 더 늘리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일반인이 실업을 당했을 때 실시하는 시험고용제도(TRIAL EMPLOYMENT)도 홈리스의 경우 직업안정소에 가서 시험고용제도에 등록하고 시험고용 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직업안정소까지 가는 교통비, 식사비, 주소지가 없는 홈리스를 고려하지도 않으면서 말만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지원기구는 정부에 대하여 홈리스에 대한 생활보호를 실시할 것과 노상생활을 보장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생활보호법의 경우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생활보호 대상자의 연령을 오오사카府 임의적으로 65세로 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고 한다.

(6) '서포티브 하우스(supportaivw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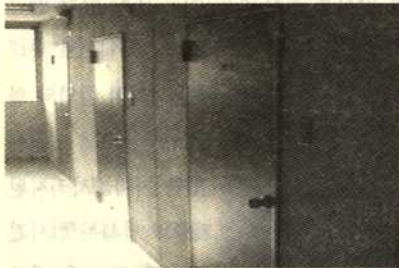


사진 2D-08 서포티브 하우스 내부



사진 2D-09 서포티브 하우스 실무자

총 102개의 방을 갖춘 '서포티브 하우스'(사진 [2D-08] ~ [1D-28] 참조)는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고령(이용자 평균연령 68세)의 일용노동자나 홈리스들이 주로 이용하며, 월 이용료(42,000엔)를 받고 운영하는 회원제 유료 숙박시설이다.

총 4명의 직원을 두고 숙박 제공 이외에 여가활동을 돕는 별도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었고, 낮 시간을 이용해 생활 상담과 의료 상담도 실시하고 있었는데 잠시 이용자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어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숙박 시설이고, 또한 대부

분이 고령이다 보니 식사를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점과 혼자 생활하면서 느끼는 외로움이 제일 어려운 문제라 했다.

사진에서도 보듯이 1인 1실 기준이고, 세탁과 목욕, 휴게 공간 등 시설적인 문제는 이용자 중심으로 잘 갖추어진 듯한 느낌을 받았고, 한국의 경우도 유료화 모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는 기존 쪽방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유료화, Drop in center 확충, 위생적인 실내 급식 공간 확충 지원 등을 통해 당사자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에서 시도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진 2D-11 서포티브 세탁실



사진 2D-10 서포티브 식당내부

(7) 기타 지원시설과 시스템

오오사카府내 '자립지원센터 오오요도'는 최대 수용인원이 280명이며, 입소해 최장 6개월간 생활 가능하다고 한다. 의료지원의 경우 '홈리스자립지원특별법'에서 개인의 상황에 적절하게 운용하라고 명시하고는 있으나 실제 기존과 다를 것이 없다고 한다. 기존의 의료 구조를 이용한다고 하나 기존의 구조라는 것이 위급하면 구급차에 실려 나가는 것이 전부이고 예방 차원의 대책이 전혀 없다고 한다.

■ 7월 11일~12일 시즈오카 방문

(1) 시즈오카 패트럴 소개

시즈오카 지역의 홈리스 당사자·지원자들로 조직되어 매월 2째주 금요일에 시

즈오카내 홈리스들의 주요 노상생활 지역에 패트롤을 도는데, 직장인들의 참여를 배려하기 위해 금요일에 패트롤을 하고 있으며, 2000년 10월부터 정례화 되었다.

패트롤시 계란과 주먹밥(김가루나 야채를 넣고 같이 버무려 뭉친 밥·사진 [2D-25] 참조)을 들고 나가는데 그 이유는 계란이 부화되듯 새 삶을 살아가려는 의지를 북돋기 위한 의미가 있다고 한다. 전수조사 결과 시즈오카에 119명의 야숙자(일본의 경우 한자어로 야숙자라는 용어를 자주 쓰는 듯 했다)가 있으며, 시즈오카 인구를 다 합하면 약 2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다. 시즈오카는 공원, 지하도 등에서 기거하며 박스와 모포에 주로 의지하며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판자집이나 텐트촌 형태는 거의 볼 수 없었다. 급식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단지 배식이 아닌, 거리 축제와 흡사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동전 던지기 게임이나 물대포 쏘기 같은 놀이가 같이 곁들여진다고 한다.

패트롤 팀에 의료진의 참여는 없었으며, 의료적 처방이 필요한 야숙자의 경우 지역내 복지 사무소에 동행하여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간접지원하고 있었다. 야숙자는 젊고 주소가 없다는 이유로 생활보호 대상에서 제외해 왔었는데 '시즈오카 패트롤'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사사무라 교수(사진 [2D-23] 참조)가 이에 행정 불복종 소송을 내어 승소하여 생활보호를 가능하게 한 사례가 있었다.

사사무라 교수에게 한국의 노숙인 DB-인트라넷 문제에 대해 설명하며 일본의 경우 야숙자에 대한 정보인권 침해 사례는 없는지 질의를 했었는데, 일본의 자립지원법 내에는 신변조사가 포함되어 있고, 생활보호법에서도 조사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이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사무라 교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특히 사사무라 교수는 그렇게 많은 정보를 취득하면서 생활보호 신청을 '수리(受理) 조차 하지도 않는데 대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2) '동료들의 모임'에 대해

'동료들의 모임'이라는 시즈오카 패트롤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폐용지로 엽서를 만들어 팔면서 서로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활동도 하고 있었다.

당사자 모임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동기에 대해 물으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에서 출발이 되었고, 더불어 지원자들의 지원에 힘입어 시작하게 되었다는 진솔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으며, '동료들의 모임'은 2000년 4월 조직되었고 NPO센터라는 곳에서 정례회의를 갖는다고 한다. [24]



한달 넘긴 서울역 시국농성장 풍경 "좀 쓸쓸해졌지만 계속해야 할 이유 있습니다"

고동우(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기자)

구 위원장은 농성 과정에서 서울역 노숙자 세명이 잇달아 죽어나가는 모습을 본 것이 가장 '충격적인 기억'이라고 말했다. "우리들 문제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업, 생존권 박탈 등 '또다른 우리'의 모습을 본 거죠. 계속 싸워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12월 3일 오후, 서울역 시국농성장 세평 남짓한 민주노동당 천막 안에는 이성필 당 소파개정과 한반도평화실현운동본부 차장이 '홀로' 추위에 떨고 있었다. "오래 돼서 그런지 천막이 정상이 아니네요. 밑으로 바람이 송송 들어오네..." 밖으로 나가 스티로폼으로 바람을 막아보지만 별무 소용. 설상가상 난로 기름마저 바닥이 났다.

근처 기름집에 급히 '구원'을 요청하는 이성필 차장. "맨 정신으로 여기서 어떻게 자야 할지 걱정이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모 중앙당 부서 부장은 얼마 전, 한밤중에 기름이 떨어져 어쩔 수 없이 소주로 잠을 청해야 했다. 그것도 혼자서.

'정치개혁' '파병반대' '노동탄압 중지'를 내걸고 지난 11월 4일부터 시작된 민주노동당 시국농성이 한달을 넘어섰다. 농성 초기엔 잇단 노동자의 자결·분신 등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열기도 뜨거웠고, 지구당 관계자 당원 등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부와 정치권의 '변함없는' 입장이 확인되어가고 투쟁 동력도 떨어져 이제 '지지방문'마저 뜸해졌다.

중앙당에서 하루 두서너 부서씩 '당번'을 정해 근근히 농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각자 업무도 비울 수가 없어 완전한 결합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전날(2일) 농성에 참가했던 임동현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부장은 "민주노동당다운 현안 결합은 없이 비효율적인 '뭉뚱어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는 '쓴소리'를 남겼다.

농성 37일째. 한다리 건너 민주노총 천막농성장엔 김형택 부위원장(민주노동당 부대표)의 모습이 보였다. 방금 전 광화문에서 이라크전 파병반대 결의대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여러모로 힘들지 않느냐"고 물었다. "뭘, 농성이야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사실 농성이란 게 들어가긴 쉽지만 접는 게 쉽지 않죠."

민주노총 지도부는 애초 12월 6일 민중대회를 기점으로 시국농성을 마무리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지난 1일 3차 투쟁본부 회의에서는 "세원테크 등 아직 현안 사업장이 정리가 안된 상태다" "이라크파병, 한-칠레 FTA 등 각종 악법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농성을 접으면 이후 투쟁이 보장이 안된다" "장기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에 농성이 도움이 되고 있다" 등 문제제기가 적지 않았고, 결국 지도부는 이러한 뜻을 받아들여 현안 사업장 타결·임시국회 종료 시점까지 농성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문제제기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전국 35개 지역에서 천막농성이 펼쳐지고 있는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곳이 적지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가 사실 더 문제다. "솔직히 정부 입장에 반대하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 이상... 농성 초기의 '투쟁 결집·확산' 목적은 이제 좀 어려워진 상황 같아요." 민중대회 이후엔 특별한 투쟁 일정조차 잡혀 있지 않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최소 12월 20일 전후까지는 농성이 계속될 것 같다"면서 "지도부는 어쩔 수 없이 연말연시를 천막 안에서 보내야 할 처지다. 투쟁이 힘을 더 받아야 할 텐데..."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당 농성장 마련을 위해 천막, 난로, 침낭 등을 여기저기서 빌리느라 고생을 많이 했던 강상구 민주노동당 연대사업부장은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막가파"라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대규모 집회, 점거, 단식, 천막농성 할 줄 아는 건 다 한 거 같은데 정부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물론 대중운동의 한계도 있겠지만, 노 대통령 자신이 '불법세력과 대화 안한다'고 하는 등 우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탓이 크다. 전 사회적으로 대선자금 비리 문제만 쟁점이 되어 있고... 참 답답하다."

저녁 8시경,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철도노조, 삼성해복투 등 9개 천막이 모여 있는 시국농성장에는 예의 어느 때와 다름없이 '불박이' 농성 멤버가 찾아왔다. 각종 살림살이를 도맡아 '농성장 집행위원장'으로도 불리는 구수영 전국민주택시연맹 위원장이 그 주인공. 여타 연맹들은 각자의 현안 등으로 '불참'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구 위원장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빼놓지 않고 농성에 참가했다고 한다. "어렵고 힘들지만 당연히 해야죠. 지금 농성은 노 대통령의 '친노동' 가면을 하나하나 벗겨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 위원장은 농성 과정에서 서울역 노숙자 세명이 잇달아 죽어나가는 모습을 본 것이 가장 '충격적인 기억'이라고 말했다. "우리들 문제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업, 생존권 박탈 등 '또다른 우리'의 모습을 본 거죠. 계속 싸워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농성장 근처 노동·농민 열사 분향소 앞에 선 한 노숙자가 바람에 꺼진 촛불을 다시 되살리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41**

출처 :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159호(12.8~12.14)

빈곤문제 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투쟁 기자회견문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의 일차적 책임을 국가가 지고, 국가가 모든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기초법에 규정되어 있는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이 DJ 정부의 민중을 속이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음이 밝혀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개선이 될 것을 학수고대 하였다. 특히 작년 이맘때 대선을 앞두고 정부는 소득인정액 제도가 도입되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것이며, 보장수준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선전하였다.

그러나 참여복지를 정책기조로 내건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일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는 작년보다 더 줄었으며, 개선된 제도는 아무 것도 없고, 내년도 예산안에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의 수 또한 작년보다 한 명도 더 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수급자 선정기준의 강화, 낮은 생계급여, 형식적인 자활사업 등으로 인하여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저소득 빈곤계층을 더욱 빈곤하게 만드는 그리고 자살을 부추기는 제도로만 기능해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인식은 거짓말 정권으로 정평이 나 있는 DJ정부보다 오히려 후퇴되었음을 확인하면서 정부의 단일한 태도에 대해 통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사회는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린 수많은 빈곤층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처절한 절망과 소외감을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벼랑으로 뛰어내리는 비참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현재 우리사회 빈곤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빈곤규모는 800만에 이르고 있으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134만명만이 수급자로 보장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빈곤규모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인 소득환산을 기준과 부당한 추정소득 부과, 부양의무

자 기준 등으로 인해 수급권자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빈곤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함을 의미한다. 더구나 수급권자로 보장받더라도, 최소한의 생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수준의 급여로 인해 더욱 고통받고 있다. 4인가구 평균 수급액이 30만원이 넘지 못하는 현재의 생계급여와 병으로 인해 고통받아도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부분의 부담으로 인해 병원을 찾지 못하는 수급권자와 빈곤계층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또한 신용불량자가 350만에 달하고, 청년실업자가 백만명에 육박하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신규로 발생한 주민등록말소자만 해도 22만명이 넘는다. 올해 새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신 빈곤층들은 대부분 근로능력이 있는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올해의 빈곤문제는 이미 위기적 상황이다.

계속적으로 늘어만가는 생계형 자살은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일례일 뿐이다. 현재 빈곤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무능력과 게으름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일하면서도 점점 더 가난해지는 상황, 일하는 빈곤층이 빈곤계층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금의 상황은 불안정한 노동이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사회적 위기와 파국으로 인식하고 따라서 신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시급하게는 사회보장예산의 획기적인 증액을 통해 빈곤해소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빈곤계층에 대한 대책마련과 유일한 안전망이자 최후의 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난한 이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일하는 빈곤층을 양산하지 않기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의 생존권에 앞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국민들의 고통을 방치하고서 자주국방이라는 미명아래 군비경쟁을 부추길 국방비 증액엔 그토록 관대한 정부가 과연 서민의 정부인가?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바로 국민의 생존권의 보장, 빈곤문제의 해결이다.

우리는 '빈곤문제 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단' 은 수많은 빈곤계층을 기만하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현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과 빈곤문제 해결, 실질적인 최저생계비를 쟁취하기 위해 11월 24일부터 12월 3까지 이곳 서울역에서 농성투쟁을 진행하며, 노무현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1,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고, 추정소득 전면 폐지하라.
2. 쪽방 입대로도 15만원이다. 현실성 없는 주거급여를 인상하라
3. 비수급 빈곤계층에게 부분급여를 전면 확대하라
4. 비현실적인 선정기준 폐지하고, 소득인정액제도 전면 개선하라
5.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도입하고, 가구원수에 따라 선정기준을 차등화하라.
6.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라.
7. 노숙인 등 주거불안계층에게 '기초생활보장번호' 즉각 부여하고, 한시적 긴급생계급여를 지급하라
8. 빈곤계층에게 필요한 의료지원을 확대 보장하라.
9. 장애인의 기본권과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10.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회의 공개하고 빈민대표를 참여시켜라.

2003. 11. 24.

빈곤문제 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단

관악주민연대, 노동자의힘, 노동장애인가간학교, 노숙인복지와인권실천하는사람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백혈병환우회, 보건복지민중연대(민중의료연합민중복지연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성동희망나눔, 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 위례복지센터,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준),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 한국자활후견기관노동조합,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노실사활동일지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편집부

1. 지난 4월 14일(월요일) 서울시청 사회과에 비영리민간단체등록 신청을 마쳤습니다.

▶ (1)회칙 1부 (2)단체소개서 (3)조직구성표 (4)2003년도 총회회의록 1부 (5)2002년도 총회회의록 1부 (6)2003년도 사업계획서 1부 (7)2003년도 수지예산서 1부 (8)2002년도 결산서 1부 (9)회원명부 1부. 이상의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2. 4월 19일(토요일)에는 관악산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약칭 노실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가입은 했지만 참여할만한 계기가 없다 보니 노실사 회원임을 차츰차츰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회원들이 좀 더 가까워서 노실사 사업을 이해하고, 회원간의 만남과 교류가 활발해 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동아리 활동(기천, 영화동아리)이 몇 차례 시도되기도 했고, 캠페인 활동에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려는 노력도 있었지만, 꾸준히 준비되고 이어지지 못해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인터넷 안에 머물러 있는 회원들을 만나고, 회원간의 교류를 위한 회원 행사의 필요성은 올해도 노실사의 주요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 매번 시작만 하다가 흐지부지 될지라도,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고, 회원간의 얼굴을 맞댈 기회를 자주 만들고 그런 횟수를 늘여 나가기 위해 올해 첫 회원 행사로 관악산 산행을 계획해 노실사 회원, 노실사 사랑방 가족, 노숙인 인권 공동실천단 자원활동가 등 17명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가랑비가 오는 날인데도 산행에 참가한 전원이 관악산 정상까지 올라가 시원한 막걸리와 함께 덕담을 나누고 앞으로도 몇 차례 더 산행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참여 하지 못한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든 항상 환영합니다.

3. 4월 22일(화요일) 서울시청 사회과로부터 첫 실사를 받았습니다.

▶ 담당 공무원이 직접 사무실을 방문해 실사를 한다는 시청 사회과 담당자의 전화를 받은 후 꽤나 긴장을 했었습니다. 노실사의 전신인 「노숙인복지실무자협의회(약칭 노실협)」 때부터 정리해 온 회계장부와 사업자료까지 갖추어 놓았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사 당일 날 담당 공무원의 첫마디는 사단법인으로 전환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격려성 인사였습니다. 5월 20일이 처리 예정 기한인데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4. 4월 30일(수요일) 한일교류회 1차 사전모임에 참가 했습니다.

▶ 지난 2001년 3월부터 연대활동의 일환으로 3차례에 걸쳐 한국·일본·홍콩의 노숙당사자와 지원자간의 교류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측은 「전국실직노숙자대책 종교시민단체협의회(약칭, 전실노협)」 사무국이 중심이 되어 지역 씬터에서 활동하는 희망의집 실무자, 노숙당사자 등으로 교류회 모임을 구성해 일본과 홍콩의 노숙지역과 노숙당사자, 노숙인 지원단체를 방문하였고, 일본과 홍콩측의 노숙당사자와 노숙인 지원단체로부터 방문을 받았습니다.

▶ 3차례의 교류회를 통해 한국측 교류회 참가자들은 일본의 노숙당사자운동과 이를 돕는 지원자들의 자세를 보면서 '노숙인을 돕는다는 것'과 '한국에서의 노숙당사자 운동이 화두로 다가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과 2002년 기타큐슈와 치바현 이찌가와시 행정당국에 의해 그 지역 노숙인들의 주요 생활 거주지에 대한 강제철거 통고가 있었을 때 한국의 주거운동도시빈민·노숙관련단체들이 동시에 항의의 표시로 팩스와 메일을 일본의 해당 행정당국에 보내 교류회를 전후로 국제연대의 중요성이 부각되기도 했었습니다.

▶ 한해를 건너뛰어 2003년 올해, 다시 한일교류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일교류회에는 노실사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1년 교류회의 자료를 살펴 보면서 당시 일본측 단체로서 교류회를 함께 했던 「시부야 노숙자의 생활과 거주권을 쟁취하는 자유연합(노지렌)」과 같은 단체의 이름에서 권리 획득을 향한 운동성을 강렬하게 느꼈습니다. 노실사도 애초의 출발이 현재보다는 좀 더 노숙 당사자의 권리를 강조하는 흐름을 만들고, 한국사회 노숙인의 인권, 의료권, 주거권, 사회적 획득을 위한 활동에 있었기 때문에 2003년 한일교류회 참가는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2~3차례 더 사전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사전모임 내용에 대해 그때그때 마다 정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 5월 2일~3일 양일간 「노숙인 인권 공동실천단」 목요일모임 모꼬지 다녀 왔습니다.

▶ 지난 2002년 5월, 월드컵을 앞두고 서울시의 거리 노숙인 지방 연수계획(이른바 월드컵노숙 특별대책)이 발표되었다가 철회되는 소동을 겪으면서, 월드컵을 이유로 만일에 발생하게 될지도 모를 인권침해상황을 모니터링하자는 취지로 노실사를 비롯해 학생조직(성균관대학교 노숙인지원동아리 H.P.A, 감리교신학대학교 도시빈민선교회), 직장인 모임(참여연대 20~30대 직장인 모임 청년마을), 경블런 아침을 여는 집 등이 팀을 구성해 노숙인 지원 단체들의 주요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지역(서울역, 영등포역 등)을 제외한 틈새지역(종묘공원, 남산공원, 대학로, 회현역)에 대해 상담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6월 2일 첫 활동을 시작해 2003년 4월에 40차 목요일모임이 이루어 졌습니다. 처음 시작할 당시만 해도 많은 부분 서툴렀지만, 이제 상담을 나가는 자원활동가들은 상담활동을 나가는 지역이 거리 노숙하시는 분들의 생활 거주지라는 인식을 갖고 시설 입소위주의 상담활동보다는 말벗이 되고, 함께 문화·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또는 직장 퇴근 후 평소 만나오던 거리 노숙생활자의 거주지를 찾아가 차한잔 나눠 마시며 말벗이 될 수 있는 그 한사람의 자원활동가가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이번 모꼬지에는 총 17명의 자원활동가가 참여했으며, 가까운 가평에서 이후 활동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노숙인 인권 공동실천단」 목요일모임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6. 회비납부를 CMS 방법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민운동 지원기금」을 통해 신청을 했으나 최종 심사에서 탈락되었습니다.

▶ 시민운동지원기금으로부터 전해들은 탈락 사유는 단체 활동 내용의 건실함은 인정하나 아직 활동기간이 짧다는 이유였습니다. CMS 납부를 통해 월250~300여만원 정도로 회비 납부 총액을 끌어 올려 유급 상근자 2명을 둘 수 있는 급여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현재로선 비영리민간단체등록신청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7. 인터넷 관련 논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인터넷)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서울시 두 차례의 질의서를 통해 서울시의 무성의한 답변을 듣고 이후 집행위원회의를 통해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인터넷) 전면폐기로 입장을 정리하였다. 이후 후속작업은 우선 "제3회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때 노숙인의 정보인권 옹호와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인터넷) 전면폐기를 위한 거리서명전을 진행하게 된다.

8. 기초법연석회의와 주거복지실현연대회의의 연대활동 참여 의의와 과정

기초법연석회의(기본생활권쟁취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연석회의)와 주거복지실현연대회의(주거복지실현을 위한 시민사회종교단체 연대회의) 참여에 대해 공식 결정하고, 대표가 계속 참석하기로 결정 함.

여러가지 문제가 겹겹이 중첩되어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게 된 노숙인들을 위한 응급구호와 치료, 재활 그리고 일할 의지가 있는 노숙인들에 대한 자립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의 노숙인 지원체계를 잘 다듬어 나가는 것(기존 체계의 개선을 통해 감당할 수 있고, 해결 가능한 것을 구분해 내고 다른 사회복지 전달체계와의 원활한 연계체계를 구축해 내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리고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권리, 이를테면 주거, 노동, 복지, 교육, 문화적 권리를 노숙인을 비롯한 가난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사회적 차별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활동 또한 노숙인 복지 영역에서 적극 나서야 되고, 누군가는 해야 할 중요한 영역이라 생각 됨.

지난 6월 임시국회본회의에서 주택법개정안(최저주거기준)이 통과되었으며, 개정안에는 최저주거기준을 설정, 공고해야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등의 조항이 삽입되었음. 그동안 임시국회본회의 통과를 위해 전실노협(전국실직노숙자대책총교시민단체협의회)을 비롯한 주거권운동관련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의 지난한 노력이 있었고, 이후 최저주거기준의 구체적 달성기준을 놓고 다시금 활발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임.

임시거주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인 현재의 희망의집에서 생활하는 노숙인과 노숙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쪽방 등과 같은 염가의 불안정 주거공간에 대해서도 최저주거기준 설정시 어떤 형태로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로 인정이 되거나, 특례적 지원 조치가 가능하도록 반영이 되어 노숙인도 국가의 주택정책에서 고려되어야 할 대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주거권운동단체들과의 연대 활동에 적극 참여해 싸워 나가야 할 것이며, 노실사는 노숙인 발생을 예방하고 노숙인을 줄여 나가기 위한 첫 걸음으로 노숙인 문제를 주거를 포함한 복지, 의료, 노동 등의 다양한 사회운동의 영역과 결합하기 위해 열심히 정성을 쏟고 발품을 들여야 할 것임.

9. 9월 26일(금요일) 오후2시 한일교류회 사후모임 : 노숙인 운동 주제찾기 워크숍

2001년부터 총 4차에 걸쳐 진행된 홈리스 한일교류회의 참가자 전원이 참석해 총 4개의 주제(주제1: '노숙인 운동의 현안과 과제', 주제2: '노숙인 운동과 주거권', 주제3: '노숙인 운동과 현상의 과제', 주제4: '노숙인 운동과 당사자성')를 놓고 토론이 진행 됨. 앞으로 한일교류회 사후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면서 노숙인 운동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함.

10. 9월 29(월), 30일(화요일) 오후2시~6시 기초법연석회의 주최 선전전 및 문화한마당(서울역 광장)

기초법연석회의 주최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담, 선전전 등이 서울역 광장에서 양일간 진행되었으며, 30일(화) 저녁 6시~8시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

선을 위한 문화한마당'이 개최 됨.

10월 1일(수요일) 안국동 참여연대 느티나무카페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3주년에 즈음한 기자회견 실시

11. 10월 2일(목요일) 오전10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종교단체 연대회의(주거복지실현연대회의) 실행위원회 제4차 회의 참여

주거관련종교시민단체들이 노력한 '최저주거기준 법제화'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설송웅 의원에 의해 입법발의 된 '주택법중개정법률안'에 최저주거기준 조항들이 삽입 되었고, 개정된 법률안에 의해 금년말까지 최저주거기준을 설정 공고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주거기준 쟁점사항에 대한 시민단체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거복지실현연대회의가 조직되어 활동 중에 있음.

참가단체는 전실노협,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주거복지연대, 한국도시연구소, 주거연합, 전국공공임대주택연합, 천주교빈민사목, 보건복지민중연대, 인천참여자치연대, 대구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천주교도시빈민회, 기독교빈민협의회,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부산참여자치연대(강석권부장) 노숙인복지외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이상 15곳이며, 노실사는 실행위 4차 회의부터 참여.

(주거복지포럼)을 구성해 '주거복지실현연대회의'의 활동 방향성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으며, (주거복지포럼)의 첫 번째 행사로 10.28(화요일) '최저주거기준 실천방안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으며, 포럼을 정례화 해 금년 말까지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토록한데 따른 ①최저주거기준 쟁점사항에 대한 시민단체안 마련과 ②'주거복지연대회의' 활동의 방향성 모색, ③주거복지정책에 대한 건의안을 마련하려고 함.

12. CMS 관련

일정액을 부담해야 하는 CMS 수납 프로그램과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최소 3개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12월초 CMS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며, 1월중으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4]

'2003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 Homeless Memorial Day

“인간에 대한 예의와 따뜻한 마음을 모아 ‘2003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 - Homeless Memorial Day’에 함께 합시다!!”

추모제 본 행사 2003년 12월 22일(월요일) 오후 6시 서울역 광장에서
추모기간 2003년 12월 19일(금) ~ 23일(화) 서울역·영등포역 광장에서

■ 올해로 세 번째 개최되는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Homeless Memorial Day'는 매년 평균 3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행려자로 처리되어 한 생을 마감하는 현실을 알리고, 추모하고자 2001년부터 일년 중 밤이 제일 긴 동짓날을 기해서 매년 한차례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 자본주의의 폐해를 온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우리시대 무의탁 빈민, '노숙인 사망'을 정의하기도 확인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거리 노숙생활 중 사망한 채로 확인되는 형태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사망하기 전에 '행려자로 처리되어 시립병원 등 국공립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다가 사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한 인간의 삶이 궁극에는 '행려자'로 처리되어 사망하게 되기까지, 우리는 허술한 사회복지전달체계와 사회안전망, 빈곤과 불건강의 악순환의 고리를 구조화시키는 한국사회 취약한 공공의료체계의 현실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지난 두차례 'Homeless Memorial Day'를 통해서 추모의 의미만이 아니라, 전국 노숙인의 수(노숙인 쉼터 입소자 수 + 거리 노숙생활자 수)가 감소할 때마다 노숙인 쉼터 위주의 '노숙인 보호 체계'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그 정책적 성공을 속단하기에 바쁜 행정당국에 대해, 그것은 지난 4년간(1998년~2001년) 무려 1,672명이 행려자로 죽어 없어진 '사망으로 인한 자연 감소분'이 일정하

게 기여하고 있고, 상설현장진료체계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알려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1년 인의협이 발표한 1998년~2001년 노숙인사망실태 조사)

■ 올해로 세 번째로 개최되는 'Homeless Memorial Day'를 통해 사회구조적 모순에 의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무의탁 빈민'인 노숙인 문제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사회적 차별에 맞서 노숙인을 비롯한 무의탁 빈곤계층의 삶을 이해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행사 개요

▶ 주관 : (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주최 : (사)인의협 각 지부,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 후원단체 : 기초법연석회의(노들장애인야학, 민주노총, 보건복지민중연대의 24개 시민사회단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영등포산업선교회,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주거복지연대, 주거연합,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의친구들

▶ 본 행사 12월 22일(월) 오후 6시

: "파병반대, 손배가압류 철회, 불안정노동 철폐" 농성장이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 추도사 | 마임공연 | 일본홈리스단체 연대·추모사 | 진혼시 낭송 | 촛불행진

▶ 추모기간 : 2003년 12월 19일(금)~23일(화)

▶ 상설 추모행사(추모기간 내내)

당사자들이 직접 현화 또는 향을 피워 뜻을 전달 할 수 있도록 영좌 설치

▶ 옷 나누기 행사 12월 22일(월) 오후 2시~4시 서울역 (구)역사 광장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노숙인지원동아리 H.P.A

2. 2001년까지 지난 4년간 1,672명이 거리에서 행려자로 사망했습니다.

▶ 연도별 노숙인 사망자수(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1998년~2001년 노숙자사망실태 조사)

년 도	전체 거리 사망자	의료 기관 사망자	거리 사망자
1998년	479	339	140
1999년	467	328	139
2000년	413	194	219
2001년(11월 까지)	313	235	78
합 계	1,672	1,096	576

1998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응급구조사업으로 '노숙인 지원사업'이 시작된 이후,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행정당국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적 노숙인의 수(노숙인 쉼터 입소자 수 + 거리 노숙생활자 수)가 감소할 때마다 노숙인 쉼터 위주의 '노숙인 보호 체계'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그 정책적 성공을 속단하고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전체 노숙인 수의 감소는 무려 1,672명이 행려자로 죽어 없어진 '사망'으로 인한 자연 감소분이 일정하게 기여하고 있음을 '1998년~2001년 노숙인사망실태 조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 노숙인의 평균사망연령 48.3세.

남성 노숙인의 사망률은 일반 남성에 비해 1.6배 높고,

특히 35~39세 사이의 노숙자 사망률은 일반인의 4.8배나 됩니다.

▶ 거리에서의 죽음을 막는데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을 비롯한 무의탁 빈곤계층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상설현장진료소를 진료시설로 공식화해야 합니다. 상설현장진료소에 대한 1년 단위 지원이 아니라, 안정적인 예산지원과 늘어나는 업무에 대비한 공중보건의와 진료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 어느 순간 거리로 나왔게 되어, 거리 노숙생활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릴지도 모를 '무의탁 빈민'인 불안정 주거생활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야 합니다.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무보증 월세, 사글세, 일세로 생활이 가능한 쪽방, 지하셋방, 판자촌, 여인숙, 고시원, 독서실, 다방, 만화방, 비디오방, 목욕탕이나 사회복지시설(노숙인 쉼터 등) 및 미신고시설 등과 같은 불안정 주거지로 숨어들어 사람들의 시선에서 가려져 있는 불안정 주거생활자들의 규모는 파악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대책 마련도 없이 발표되는 '빈곤특별대책'은 이제 무의미하며, 불안정 주거생활자에 대한 전국적 규모의 파악과 주거와 노동, 복지와 의료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 마련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일선 동사무소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와 '긴급 생계급여지급' 업무를 민간 상담기관과 적극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하루 하루가 삶과 죽음인 사각지대 빈곤계층의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

지난 2000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상의 문제가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노숙인·쪽방생활자를 비롯한 60여만명이 넘는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와 '긴급 생계급여지급' 대책을 발표해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대표적인 쪽방 촌이자 거리 노숙생활자들이 밀집된 지역인 서울역 인근의 회현동 사무소가 지난 2000년부터 단 1건만 번호 부여를 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2003년 11월 27일 '빈곤문제해결, 최저생계비 보장 서울역 농성단' 회현동 사무소 면담 방문 결과) 민간 상담기관과 적극 연계해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와 '긴급 생계급여지급' 업무가 제대로 시행되게 해야 합니다. [4]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회·원·명·단

문헌준(노실사대표), 박용범(인드라양공동체), 이원기(햇살보급지리), 조성준(전실노협), 국신호(남부노인복지관), 목진룡(前생명의전화복지관), 인도영(서계보현의집), 김승무(인권실천시민행동), 김봉은(인천동구내일의집), 강진영(청담복지관), 조상훈(신당복지관), 이정호(동촌1복지관), 김기혜(화엄동산), 조남희(화엄동산), 최상구(다사랑아울), 송평준(ING보협), 최성남(자유의집), 최수경(성남시정신보건센터), 강구영(자유의집), 조희순(자유의집), 김용진(자유의집), 박미경(자유의집), 신은경(前자유의집), 안진수(자유의집), 함찬일(상도복지관), 최정자(前청음양로원), 김양곤(前연2단지복지관), 이재길(동촌7복지관), 정태호(성수삼일내일의집), 정태현(성수삼일내일의집), 민은영(前성수삼일내일의집), 손지혜(前성수삼일내일의집), 정영배(前강북복지관), 김지선(본동복지관), 이호익(前가양4복지관), 이상철(가양4복지관), 신춘수(양평재활센터), 김광수(前산북복지관), 강대근(생명의집), 진용수(한빛복지관), 김대술(성공회살림터), 박장영(前성공회살림터), 송영팔(양진차량후견기관), 박석수옥(극단미추), 오동철(前유린원광복지관), 이동근(前북부복지관), 윤규수(중계복지관), 이주원(아침여는집), 최윤순(아침여는집), 최수진(대전폭발상담소), 전미경(대전폭발상담소), 이주원(대전 아귀의집), 최윤규(강릉희망의집), 권오대(당사자), 김도진(구세군충청로사랑방), 김옥(구세군충청로사랑방), 김종원(구세군충청로사랑방), 김상화(구세군충청로사랑방), 나백은(전실노협), 김지연(전실노협), 변미성(前전실노협), 박정미(前유뉴스) 최희경(승실대학생), 김진혜(승실대학생), 이기욱(前햇살보급지리), 김의근(대동종합사회복지관), 강구원(다시서거지원센터), 권금호(금오인터리어), 유복근(김포정보), 조정계(부산동구폭발상담소)희망나눔방), 최명숙(前아침여는집), 이은순(한기회) 박종하(대구시민), 권혜민(안동대신문사), 조규백(ING보협), 장운진(시립대학교), 김인혜(한동대학교), 한동남(대전 월드상사), 이동현(감신대비전선교회), 이주희(대구카톨릭대학교지원집회), 이덕주, 김진원(사회복지대학원), 최나영(부산 화평관), 안현철(다시서거지원센터), 배명희(해명양로원), 김신희(대전 웰빙의집), 백선희, 황상희(성균관대학교원), 장수경(대구시민), 유영우(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정인태(서울저초경찰서), 김용태(남원사회동역사), 권오대(금터생활인), 이경재, 이근호(성균관대 IIPA 동아리), 김계자(대구시민), 조석훈(주)젤마이크로, 박우환(주)유원스, 서대경(서울시민), 임재진, 박해경, 이종일(대구놀이디자인연구소), 유의선(서울저실업운동연대), 한경자(스타클럽미용실), 서대열(기양4복지관) 현시웅(대구 상담센터), 이정호(자유의집), 김진미(다시서거지원센터), 산문희(승실대학교원), 김동욱(시사뉴스), 조정래, 김요환(前 영등포역 상담소), 심재훈(다시서거지원센터), 강현구(대구시민), 서유경(다시서거지원센터), 정민재(안나의집), 여소연(문화타미의치점), 허우범(웅진코웨이), 김원희(당사자), 안진호(당사자), 오재원(당사자), 손병주(당사자), 이재명(당사자), 홍기호(당사자), 이승태(당사자), 송동근(당사자)

작은 사람들의 글모음

떨꺼 등이

2003년 12월 제5호(동권 7호)

표지 글씨 / 신영복

표지 사진 / 편집위

편집자문위원

정해민

편집위원

박미경, 최윤순, 최수정
조경태(부산), 조재희(대구),
김선희(대전), 이윤정, 송영숙

편집책임 / 이원기
컷그림 / 작문해, 변우봉

퍼낸이 / 문헌준

퍼낸곳: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약칭, 노실사)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
가 29-96번지 2층
(우)150-900

전화: 02-2634-4331
팩스: 아직은 없습니다.

홈페이지
<http://www.homelessaction.or.kr>

인쇄/한빛기획(2277-6917)

2003년 12월 제5호(동권7호)

2003년 12월 22일 퍼낸

(계절이 바뀔 때마다 퍼낸)



편집자의 변 년

정말 많이 기다렸리셨죠! 어떻게 2003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떨꺼등이 5호가 거의 1년 만에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거들거들 고개숙여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올 한해동안 여러 가지 별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노숙인의 복지를 지원하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노숙인정보종합관리시스템(인트라넷)이 당사자의 문제제기로 시작하여 서울시에 두차례 질의서를 보냈지만 서울시의 무성의한 답변을 듣게 되면서 우리단체는 노숙인정보인권을 위해 인터넷 전문페기로 입장을 정리하고 추모제때 본격적인 서명전을 벌입니다.

또한 돈 몇푼 때문에 철거용역업체의 알팍한 손길을 피하지 못한 노숙인들과 절박한 생존권을 놓고 대치하는 노점상들은 한국사회 천민자본주의가 만들어놓은 기가막힌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초법언석회의(기초생활권쟁취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언석회의)와 주거복지실현연대회의(주거복지실현을 위한 시민사회중교단체 연대회의) 참여로 노실사가 외연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는 힘든 상황이 많았지만 유료쉴터도 꾸러가면서 연대활동도 힘있게 참여해왔습니다. 특히 편집자의 변을 통해 고마움을 전해야 할 분이 계십니다. 8월부터 떨꺼등이를 아껴주신 독자 한분이 매월 20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고마운 마음을 떨꺼등이 제5호에 담아서 보내드립니다. 앞으로도 떨꺼등이에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편집장 이원기

2003년 노실사 살림살이는 다음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